

| | | |
|--|--|---|
| 10» 전임교원 책임시수 상향조정 | 12» 거지같은 청춘, 하지만 위로받지 않을 권리 | 2학기 정기강의평가 실시 안내 |
|  |  | 기간 : 2015.12.01(화)~2015.12.28(월) 대상 : 양 캠퍼스 재학생 (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강좌 : 학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 강좌 성적 열람 및 공시 기간 : 2015.12.31(목)~2016.01.05(화) |

■ 지령 1600호 특집 - 멀고 먼 하나의 캠퍼스

캠퍼스 통합 이대로 관철은가

국제캠퍼스의 정식명칭은 ‘경희대학교 용인분교’로 시작해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를 거쳐 2007년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로 명명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제캠퍼스의 소위 본·분교 논쟁은 지난 2011년 8월에 본교통합에 관한 교육부 승인을 받음으로써 일단락되어, 2012학년도 3월부터는 공식적으로 양 캠퍼스가 ‘이원화캠퍼스’가 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캠퍼스 통합은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캠퍼스 곳곳에는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산재해 있다. ‘이원화’ 및 ‘특성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국제캠퍼스’라는 캠퍼스 명칭에서부터, 응용과학대학과 이과대학 등에서 벌어지는 유사학과 논쟁, 캠퍼스 학과분류 시 기준 적용의 모호함에서 오는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산적해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그것이다.

우리신문은 지령 제1600호 특집호를 맞아, 진정한 캠퍼스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상세히 짚어보았다.

지면 안내

| | |
|-------------------------|-------|
| 캠퍼스 이원화 구성원 설문조사 | » 3 |
| 겉 다르고 속 다른 학과 분류 | » 4 |
| 주요기업 입사지원시 캠퍼스 분리 표기 논란 | |
| PRIME사업, 양 캠퍼스 “소통하라” | » 5 |
| 길게 읽기-‘국제캠퍼스’ 명칭 | » 6~7 |
| 끝나지 않는 유사학과 논쟁 | |
| 응용과학대학-이과대학 | » 8 |

국제캠퍼스는 왜 ‘국제’캠퍼스 인가요

‘한쪽만의’ 명칭변경 아래 드러난 ‘무색한 이원화’

길게 읽기 - 캠퍼스 명칭

이성민 기자 lsm1590@khu.ac.kr

‘국제캠퍼스’라는 명칭이 등장한 지 8년이 되어간다. 우리학교는 지난 2007년 6월 7일 총장 승인과 그 해 7월 30일 학교 법인 경희학원의 캠퍼스 명칭 변경 승인을 거치며 ‘수원캠퍼스’의 명칭을 ‘국제캠퍼스’로 재명명했다. 2007년 10월 18 일에는 국제캠퍼스(국제캠) 중앙도서관 3층 피스홀에서 있었던 ‘국제캠퍼스 비전선포식’에서 ‘Global Mind, Global Reach’의 슬로건과 함께 기존의 명칭 대신 ‘학문적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수원캠퍼스’의 새로운 이름인 ‘국제캠퍼스’를 대대적으로 공포했다.

하지만 최근 구성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입시정보의 ‘사실상 분교’ 표기와 캠퍼스 간 유사학과 다전공 불가와 같은 문제점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불분명한 이원화 기준’과 함께 캠퍼스 학문단위를 나타낸다는 ‘명칭’에 관한 논란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서 구성원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현재의 ‘국제캠퍼스’라는 명칭이 과연 현재 국제캠의 ‘학문적 정체성’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다.

현재 국제캠의 학문 분포는 2015년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 전체 제적인원 기준 16,798명 중 이공계열이 55%(9,267명), 인문·사회계열이 19%(3,161명), 예체능 계열이 26%(4,370명)로 나타난다. 이중 공학계열은 약 40% 가량을 차지하며 단일 계열로는 가장 많다. 현재의 명칭이 캠퍼스 내 학문 분포를 충분

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명칭변경 당시에 이는 문제 사항이 아니었다. 2007년 있었던 비전선포식 내용에 따르면, ‘국제캠퍼스’로의 명칭정립이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국제적 학문 단위의 특성화’에 있었다. 이를 위해 우리학교는 ‘ABEEK(공학교육인증제)’과 ‘국제화 프로그램’을 내 걸었다.

‘ABEEK(공학교육인증제)’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하 공인원)에서 각 전공 별로 요구하는 필수사항을 바탕으로 공학 학위를 인준하는 제도다. 최초 도입 당시 ‘실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공학인 육성’을 취지로 인증받은 학위가 해외 14개 국가에서 통용된다는 장점이 있었다. ‘국제적 엔지니어’를 키워낼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다수의 국내 대학이 참가했고, 우리학교 역시 2009년도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ABEEK은 끊임없이 위기를 맞았다. 엄격한 인증기준에 비해 국내 취업 시 실효성이 떨어져 구성원들의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대다수의 졸업생이 국내에 잔류하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혹도 상당했다. 결국 올해 공과대학이 존폐논란을 지속해오던 ABEEK의 폐지를 결정하면서 국제캠의 ‘국제적 학문의 정체성’은 연결고리를 잃게 됐다.

‘국제화 프로그램’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다양한 문화권의 외국인과의 교류’를 지표로 국제화 역량에 집중하던 우리학교 외국인 학부과정 재학생 수는 총 1,711(2015. 10. 01 기준)명이다.

▶6면으로 이어짐

욕망, 결핍과 충족의 패러독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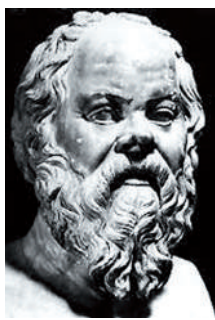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⑦

조현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욕망이란 무엇인가? 무언가를 몹시 원하는 것이다.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원한다. 우리는 행복과 건강, 미모와 지성, 재력과 권력을 원한다. 욕망은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은 지금 내게 결핍된 것이다. 욕망은 그 결핍을 채우려는 운동이다. 욕망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핍이 필요하다. 에로스(Eros)는 풍요의 신

포로스(Poros: plenitude)와 결핍의 신 페니아(Penia: poverty)의 소생이기 때문이다.

욕망은 인류가 발생하면서부터



소크라테스는 에로스란 ‘스스로가 아름다움이 부족해 이를 추구하는 욕망’이라고 말한다

함께 있어왔다고 해도 좋을 만큼 오래된 것이다. 플라톤은 행복하기 위해 ‘조금 부족한 재산, 약간 부족한 용모, 절반이 알아주는 명예. 한 사람과 겨룰 체력, 청중 절반이 박수 칠 말솜씨’가 필요하다고 했다. 18-9세기 독일 관념주의 철학자 헤겔은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충족보다 한 발 앞서 있어 욕망은 만족을 모른다’고 했고, 20세기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는 ‘성적 욕망은 삶의 추동력이며 사회적 금기 때문에 금지된 욕망은 꿈에서라도 표출된다’고 했다. 그리고 21세기 프랑스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

은 ‘진정한 욕망은 상징적 요구를 가로지르는 실재의 윤리’라고 했다. 동물과는 다른 인간만의 욕망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고대 희랍 철학이다. 기원전 4세기 플라톤이 저술한 『향연(Symposium)』에는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당대 희랍 철학자들의 열정어린 에로스 논의가 들어있다.

『향연』은 아폴로도로스가 예전에 아가톤의 집에서 들었던 향연의 이야기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전해들은 것을 전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11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전문가 칼럼

특허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오환석 (기계공학)교수 >>11면



시선

사설

전임교원 책임시수, 결국 책임감 문제다

‘경희대학교’가 여타 다른 대학교와 다른 변별성을 지니는 이유는 경희 고유의 교육철학과 가치관 덕분이다. 이것으로 인해 경희대학교는 경희 정신을 지닌 인재들을 매년 사회로 배출하게 된다. 그렇다면, 경희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과연 무엇을 통해 경희의 교육 철학과 가치관을 함양하게 되는가? 가장 주요한 통로는 역시 ‘경희대학교에서 자신이 수강하는 교과목 강 의들의 총합’이다.

대학알리미 공식자료가 새롭게 갱신될 때마다 이목을 모으는 지표 중 하나인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전임교원이란 대학이 그 학문적 역량과 교육적 가치관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경희의 철학을 대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선발한 교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임교원의 강의’라는 것은 곧 ‘경희가 인증한 교원을 통해 경희의 교육철학이 학생들에게 원활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전임교원 책임시수 문제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 봐야 한다. 지난 2007년 18시수였던 전임교원 책임 시수는 현재 12시수로 대폭 축소돼 있다. 이것은 교수 의 강의 부담을 줄여 연구 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였다. 하지만 우리신문이 지난 제1589호 사설을 통해 서도 지적했듯, 2007년 이후로 8년여가 흐르는 동안 교 수 연구실적은 눈에 띄는 개선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는 것이 대학 측이 인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다.

교수, 특히 전임교원은 학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하이브레인넷에는 매일 수많은 젊은 학자들이 교원채 용정보를 얻기 위해 모여들고 있고, 캠퍼스 안에서는 무수한 신진연구자들이 시간강사라는 이름 아래 여러 개의 강의를, 학술연구교수라는 직함 아래 여러 개의 연구 성과를 감당하며 언제가 있을지 모르는 전임교원 전환을 꿈꾸고 있다.

물론 전임교원 책임시수는 대학의 필요에 의해 대학 이 앞장서 축소해온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와서 온전히 전임교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한 일일지 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은 ‘최고위 학 술기관의 학문적 중추’이자 ‘한국 사회의 지성’으로서 다른 구성원에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극소수이겠지만 전임교원에 대 해 ‘강의는 시간강사에게, 연구는 학술연구교수에게 떠맡기고 자신의 권리 유지에만 신경 쓴다는 비판적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까지 언급하는 것은 다소 과잉 이겠지만, 적어도 전임교원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위 에 걸맞은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봐야 한다. 전임교원 책임시수가 2008년에 18시수에서 15시 수로 조정된 것이 당시의 시대적 요구였다면, 2015년에 12시수에서 15시수로 조정되려는 것 또한 작금의 시 대적 요구일 것이다. 그리고 그간 ‘줄어든 책임시수’가 곧바로 ‘확연한 연구성과의 증가’로 이어짐을 증명하 지 못한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국가경제는 물론 학교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경희 구성원의 대표가 되어야 할 교수들이 먼 저 기득권을 양보하는 희생과 헌신을 보여줄 것을 기 대해 본다.

서울캠 증명서 발급기 교체 내년으로 미뤄져

미디어 여론동향 2015. 11. 17 ~ 11. 29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10월말까지 예정됐었던 서울캠퍼스(서울캠) 증명서 발급기 교체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증명서 발급 기 교체, 구청의 허가 문제로 인해 내년으로 미뤄져/대 학주보 온라인, 2015.11.23) 노후화된 기존 증명서 발급 기를 교체할 예정이었다. 또한 접근성을 위해 문·이과대 학 건물 앞 심터(돌마루)에 부스를 설치해 이전할 계획 이었다. 하지만 돌마루에 설치될 옥외 부스에 관한 구청 의 허가 문제로 발급기 교체가 지연되고 있다.

우리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쿠플라자가 홈페이지에 개 편 계획을 밝혔다.(온라인 커뮤니티 ‘쿠플라자’ 개편한 다…“디자인 개선과 게시판 신설 및 통폐합 할 것”/대학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주의 주제 - 불필요한 오해 일으키는 모호한 규칙

모든 상황에 적용가능한 규칙 만들어야

김종완 기자

as03400@khu.ac.kr



지난 25일,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는 제48대 총학생회 임원이 결정됐다. 단선으로 치뤄진 이번 선거로 서울캠의 총학생회 선거는 3년 연속 단선 으로 진행됐다. 국제캠퍼스(국제캠) 또한 재작년 과 올 해 선거가 단선으로 진행되는 등 단선 선거 는 이미 익숙한 일이 돼버렸다. 그런데 이 같은 상 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 선관위)는 선거가 단선으로 치러지는 경우에 대한 준비를 세심하게 해놓지는 못한 것 같다.

먼저, 중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 진행과 관 련된 여러 규칙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 을 보였다. 기자가 투표에 대해 취재하면서 중선관 위에 당선 조건에 대해 질문했을 때, 중선관위 관계 자는 “단일선본의 경우 ‘재학인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당선 조 건”이라고 확인해주었다. 하지만 정확한 규정은 총 학생회 회칙 제60조 3항에서 ‘단독 출마인 경우에 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회원 2/3 이 상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해당 관계자의 위와 같은 발언은 엄밀히 말해 잘못된 것이다. 물론 며칠 뒤 관계자는 자신 이 잘 못 알고 있었다며 ‘투표인원의 2/3 이상, 즉 66.6%가 맞다’고 정정했지만, 선거를 관리하고 당 선을 발표하는 중선관위에서 당선조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는 ‘모호한 선거세칙’과 ‘치밀하지 못한 중선관 위의 인식’이 겹쳐져 벌어진 일이다.

중선관위가 노출한 또 다른 문제점은, 서울캠에 서만 벌써 3년 연속으로 단선이 이뤄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단선 시 단일선본이 투표 인원의 2/3 이상 득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중선관위 측은 “논의 후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 결정한다” 는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것은 관점에 따라선 문제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답변이다.

‘단선으로 치러지는 선거’는 이제 ‘예외적인 상 황’이 아닌,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 데도 단일 선본이 선거에서 ‘진다’라는 분명한 가 능성에 대해 명확한 규칙 제정으로 대응하는 대신 ‘일이 벌어지면 논의 후 결정’이라는 모호한 태도 로 대응하는 것은, ‘총학생회 선거’의 격(格)을 ‘상 황에 맞춰 그 때 그 때 대응하는 주먹구구식 선거’ 로 격하시키는 운영임에 다름 없다. 일부 학생들 사 이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은 물 론이다.

단선으로 치러진 지난 3년 간 서울캠의 총학생회 득표율은 재작년 86%, 작년 75.03%, 올해 71.4%로 점점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번 선거득 표율은 낙선의 경계선인 66.67%와 고작 4.73%밖 에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다. ‘단선은 낙선이 없다’ 고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빈틈없는 규정과 관 리자의 명확한 인식으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세심한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비밀스러운 프라임사업 논의, 더 큰 화를 불러올수도

세시봉



황경선 <파트장>

프라임사업을 처음 만난 지난 7월, 당시 대학본부 측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프라임사업에 대해 8 월 말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 다. 그래서 8월 말에 바로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계획’ 에 대해 물어봤다. 그런데 직원은 9월 초에 구체적 윤곽이 잡힐 것 같으니 그때 전화를 직접 주겠다고 했다. 9월 초부터 셋째 주까지 기다렸지만 연락은 오지 않 았다.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조교는 ‘아직 논의 중이어서 10월 중순에 다시 전화 드린답니다’라 고 말했다.

그리고 기다리던 10월 중순이 다 가도록 전화는 오 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웬걸, 다음 달에 다시 연락을 달라는 것이다. ‘다음 달’ 로 미루기만 벌써 네 번째였다! 수차례 취재의 문턱에 서 고배를 마시다 보니, 구성원의 알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건가 싶었다.

이후로도 대학 본부 측이 계속 답변을 회피하는 바 람에, 결국 프라임 사업에 대한 분석기사를 쓰면서 정 작 우리학교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학교 구성원에게 알려줄 수 없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취재 협조가 불가 능하다는 입장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핑계 로 취재를 교묘히 피해가는 대처방식이 아쉬웠다. 대 학본부는 아마도 ‘전략 유출’을 우려해 사업 관련 논의 에 대해 함구한 것일 테다. 하지만 구성원들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적어도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해명이라도 해야야 한다. 타 대학들은 전략 유출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며 ‘담당자’가 취재를 정중히 거 부했다. 번번이 조교의 목소리만 들려주던 우리학교 대학본부와는 상반된 매너였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언론을 통해 프라임사업을 희미하게 접한 학생들, 특 히 학과 통폐합 논란에서 언제나 을의 입장에 서게 되 는 인문계 학생들은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 것인가.

대학본부는 프라임사업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 을 구성원에게 어느 정도의 진행 과정을 설명했어야 했다. 전략 유출이 우려된다면 각 구성원 대표와 대학 언론에게 솔직하게 이런 문제들이 있어 논의를 구성 원 차원으로 넓히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 이것이 대학 전체의 대의를 훼손시키 지 않으면서도 소통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식이다.

우리 이미 대학본부의 ‘습관적인 불통’을 작년 12월 의 ‘B0룰’ 사례를 통해 목도한 바 있다.

구성원은 중요한 학내 사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 길 바랐지만, 교수들로부터 ‘대학본부의 지침으로 B0 룰을 당장 이번 시험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일방적 통 보를 받아 학생대표들이 나서 거센 항의를 했다. 대학 본부는 그제야 합의 없는 제도 강행을 사과하고 철회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대학본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를 ‘밀살’에 가둬두고 있다. 이제는 문제를 외부로 끌어내야 한다. 지난번처럼 유야무야 구성원 소통 과 정을 넘어가려다 논란이 커지자 부랴부랴 수습하는 모습 말고, 논의 과정에서 활발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 해 책임감 있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 여줘야 할 것이다.

알림

바로 잡습니다

우리신문 1599호 ‘법정부담금 비율 59.4%로 2년째 감소 법인 측, “모두 부담하기 힘들어” 기사에서 본문 중 교비 회계 13년 약 180억, 14년 약 240억, 15년 약 300억이 흑자 를 기록한 반면 법인회계는 14년 약 220억, 15년 약 12억을 적자를 기록했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법인 측 은 ‘적자와 흑자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 어 교비회계는 예산대비 실적 초과 달성, 법인회계는 예산 대비 실적 미달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이에 바로 잡습니다.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전 | 편집장 박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경 02-441-7317(미레기회)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희1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921

기획

겉 다르고 속 다른 학과분류 ... 통합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

불명확한 학과 소속

박기윤 기자 kyoon@khu.ac.kr
이시은 기자 dltldms77@khu.ac.kr

우리신문은 지난 1599호에서 PRIME사업을 자세히 다룬 바 있다. 교육부는 PRIME사업을 통해 대학들의 자구적인 학문간 융복합 및 학과조정, 캠퍼스간 정원조정 등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각 대학들은 PRIME사업을 학사구조를 개편할 ‘호기’로 삼고 있다. 우리 학교의 일부학과의 경우, 해당 학과가 속한 단과대학과 성격이 맞지 않아 이를 방지할 경우 향후 캠퍼스 간 진정한 통합과 대외적 이미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에 우리신문은 이번 기사에서 이러한 학과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그들이 왜 현 상황에 놓이게 됐는지에 대해 알아봤다.

같은 커리큘럼 다른 캠퍼스

소수계열 학생 피해 우려돼

#1. 정보디스플레이학과와 커리큘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초과목의 경우 미적분학 연습, 물리학 및 실험, 공학수학 등 국제캠 자연계열 전공기초와 상당 부분 커리큘럼이 일치한다. 전공과목 또한 전자기학·반도체·재료 등 전반적으로 국제캠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학사’ 교육과정과 흡사하다. 하지만 정보디스플레이학과와 소속 단과대학은 이과대학이다. 해당 학과목을 대부분 수강해 본 유영신(정보디스플레이학과 2011) 군은 “배우는 과목이 거의 공과대학과 유사하고 향후 진로도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등 공학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정보디스플레이학’이라는 이름 때문에 큰 상관은 없지만 졸업장이 ‘공학사’가 아닌 ‘이학사’로 나오는 점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보디스플레이학과가 이과대학에 속해 있어 생기는 ‘어색함’은 단순히 외형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다. 교육과정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공학’을 다룸에 따라 본인의 취업관련 전공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융합트랙’ 기획의 부재도 아쉬움을 자아낸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각 이공계열 기업에서 취업 시 실질적인 ‘직무 역량’을 요구해 옴에 따라 국제캠 내 전자공학 계열은 컴퓨터공학 등과 함께 단과대학 내 트랙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반면, 정보디



서울캠퍼스 무용학부

서울캠퍼스 이과대학

스플레이학과는 이가 불가능한 상태다.

의명을 요구한 정보디스플레이학과 A학생은 “최근 중국이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분야에서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다”며 “우리 학과가 배울 수 있는 학문의 운신의 폭이 좁아보니 취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과대학 중 유일하게 공학 관련 과목을 배우고 있는 정보디스플레이학과는 이과대학내에 해당 전공들을 자체적으로 개설하고 있어 결국 유사한 강좌를 양 캠퍼스에서 개설하는 비효율이 초래되는 셈이다. 정보디스플레이학과 행정실은 “전공기초 과목에 대한 실험시수가 공과대학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험시수의 차이는 정보디스플레이학과가 이과대학에 있어야 하는 ‘당위’보다는 오히려 이로운데 생기는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인다.

이에 대해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이승재 교수는 “정보디스플레이학과가 전자정보대학과 유사한 과목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합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기초학문의 뒷받침 없이 정보디스플레이 학과만 합쳐지게 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학과장은 “융·복합에 발맞춰 이과대학과 공과대학의 전체적인 연계

는 필요하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자정보대학의 입장은 다르다. 전자정보대학 이수열(생체의공학)학장은 정보디스플레이학과와 교육과정에 대해 “현재의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커리큘럼은 국제캠 공학계열 전반에 걸쳐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전자정보대학의 방향성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학장은 “장기적으로 공학계열의 인프라가 구축된 국제캠의 전자정보대학으로 속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다만 교수진들의 경우 납득할 수 있는 요건일지라도 학생들의 반발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닌

들어가지 ‘않은’ 무용학부

#2. 무용학부는 지난 1966년 체육대학 소속 무용학과로 처음 설립됐다. 이후 있었던 수차례의 이전 논의가 있었지만 무용학부는 2011년도까지 소속 단과대학(예술·디자인대학)은 국제캠에, 학과는 서울캠에서 운영됐다. 2012년 끝내 독립학부로 승인받았다. 이 같은 과정에 대해 무용대학 행정실 측은 “학과가 독립할 당시

법적, 행정적 절차는 모두 지켰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무용학부는 자율전공학부를 제외하곤 사실상 교내 81개 학과 중 유일하게 ‘단과대학이 없는’ 독립 학부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를 바라보는 대내외적 인식이다. 무용학부는 기존의 소속 단과대학(예술·디자인대학)이 있음에도 단과대학이 없는 독립학부로 운영되고 있어 한 학교의 학사운영체제로는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무용대학의 견해를 듣고자 무용대학 측과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는 뜻을 전해왔다.

#3. 자율전공학과는 지난 2009년에 신설된 학과로, 신설 당시 서울캠, 국제캠 양 캠퍼스에 각각 자율전공학과(인문), 자율전공학과(자연) 형태로 운영됐다. 하지만 2012년 본·분교 통합 시, 교육부 방침에 따라 국제캠의 자율전공학과가 사라지고 서울캠의 자율전공학과만 남게 됐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자율전공학과 학생들은 1학년을 마치고 전공을 선택할 시 국제캠에 있는 학과로 전공을 선택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자율전공학과 행정실은 “국제캠에 있는 자율전공학과(자연)와 서울캠에 있는 자율전공학과(서울)이 합쳐진 것이 아니라

국제캠 자율전공학과가 폐지된 것이기 때문에 캠퍼스 이동을 겸한 전공 선택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교육부로부터 한 캠퍼스에서 공동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점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영어학과

‘전통’을 이유로 변경에 ‘난색’

#4. 영어학과는 ‘유사학과’와 얽혀 학문단위 구분이 바르지 못한 경우다. 실제로 송창섭(영어학) 학부장은 외국어대학 내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글커)와의 유사성에 대해 “글커의 경우 영문학을 전공하는 구성원들이 유지해온 시스템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유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진 소속 단과대학 변경에 대해서 송 학부장 “영어학과는 ‘전통적으로’ 문과대학에 존재해 왔고 대표적인 전공 중 하나다”며 선을 그었으나 명확한 캠퍼스 이원과 구분과 소수계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어대학의 서울캠 이전이 고려된다면, 본 학문단위의 정립은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201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강좌 현황

| 대학 | 이수구분 | 강좌명 | 학점 | 강사명 | 시간 | 장소 | 영어강의 | 비고 |
|-----------|-----------|---------------|----|-----------------|-------------|------|-------------|---|
| 생명과학대학 | 전공기초 (생물) | 일반생물 | 3 | 김기영 | 09:00~11:45 | 국311 | 영어강의 | |
| | | 생물1 | 3 | 이상원 | 13:00~15:45 | 생422 | 영어강의 | |
| 외국어대학 | 전공필수 | 중국어문법2 | 3 | 주취란 | 13:00~15:45 | 외403 | | 강의실 변동가능 |
| | | 미분방정식 | 3 | 김경수 | 09:00~11:45 | 전103 | | 타타칭 |
| 응용과학대학 | 전공기초 (수학) | 미분방정식 | 3 | 김현미 | 전103 | | | 타타칭 |
| | | 미분방정식 | 3 | 손주희 | 09:00~11:45 | 전221 | | 타타칭 |
| | | 미분방정식 | 3 | 김동기 | 전221 | | | 타타칭 |
| | | 미분적분학1 | 3 | 김장산 | 13:00~15:45 | 전101 | | 타타칭 |
| | | 미분적분학1 | 3 | 김정학 | 전101 | | | 타타칭 |
| | | 미분적분학1 | 3 | 백옥분 | 13:00~15:45 | 전102 | | 타타칭 |
| | | 미분적분학1 | 3 | 최상아 | 전102 | | | 타타칭 |
| | | 미분적분학1 | 3 | 남궁유미 | 13:00~15:45 | 전103 | | 타타칭 |
| | | 미분적분학1 | 3 | 김현수 | 전103 | | | 타타칭 |
| | | 미분적분학1 | 3 | 박정주 | 13:00~15:45 | 전221 | | 타타칭 |
| | | 미분적분학2 | 3 | 이영수 | 전221 | | | 타타칭 |
| | | 미분적분학2 | 3 | 홍병일 | 09:00~11:45 | 전101 | | 타타칭 |
| | | 미분적분학2 | 3 | 양재득 | 전101 | | | 타타칭 |
| | | 미분적분학2 | 3 | 신민숙 | 09:00~11:45 | 전102 | | 타타칭 |
| | | 미분적분학2 | 3 | 변희영 | 전102 | | | 타타칭 |
| | | 선형대수 | 3 | 한창용 | 13:00~15:45 | 전223 | | 타타칭 |
| 전공기초 (물리) | 전공기초 (물리) | 물리학및실험2 (이론) | 3 | 김선경 | 09:00~10:50 | 물407 | | 타타칭 |
| | | 물리학및실험2 (실험) | 3 | 김선경 | 11:00~12:50 | 물405 | | 타타칭 |
| | | 물리학및실험2 (이론) | 3 | 김선경 | 09:00~10:50 | 물407 | | 타타칭 |
| | | 물리학및실험2 (실험) | 3 | 김선경 | 11:00~12:50 | 물406 | | 타타칭 |
| | | 물리학및실험2 (이론) | 3 | 송현욱 | 13:00~14:50 | 물407 | | 타타칭 |
| | | 물리학및실험2 (실험) | 3 | 송현욱 | 15:00~16:50 | 물405 | | 타타칭 |
| | | 물리학및실험2 (이론) | 3 | 송현욱 | 13:00~14:50 | 물407 | | 타타칭 |
| | | 물리학및실험2 (실험) | 3 | 송현욱 | 15:00~16:50 | 물406 | | 타타칭 |
| | | 물리학및실험2 (이론) | 3 | 송현욱 | 13:00~14:50 | 물407 | | 타타칭 |
| | | 물리학및실험2 (실험) | 3 | 송현욱 | 15:00~16:50 | 물406 | | 타타칭 |
| | | 물리학2 | 3 | 이명조 | 09:00~11:45 | 물408 | | 타타칭 |
| | | 화학및실험2 (이론) | 3 | 김광표 | 13:00~14:50 | 공363 | | 타타칭 |
| | | 화학및실험2 (실험) | 3 | 김광표 | 15:00~16:50 | 물310 | | 타타칭 |
| | | 프로그래밍기초 | 3 | 이승형 | 09:00~12:50 | 전107 | | 타타칭 |
| | | 고급그래픽스 | 3 | 한용구 | 13:00~16:50 | 전109 | | 타타칭 |
| | | 컴퓨터구조 | 3 | 양승배 | 13:00~15:45 | 전106 | | 타타칭 |
| 전자정보대학 | 전공필수 | 콘텐츠제작과 컴퓨터그래밍 | 3 | 나성호 | 09:00~11:45 | 전106 | | 부전공(SCSC)트랙이수자만 수강가능.전자정보대학 재학생 및 교원학생 수강불가 |
| | | 컴퓨터구조 | 3 | 양승배 | 13:00~15:45 | 전106 | | 부전공(SCSC)트랙이수자만 수강가능.전자정보대학 재학생 및 교원학생 수강불가 |
| 중계교과 | 후마니타스칼리지 | 우리시대는세계무엇이든세계 | 3 | 정승국 | 09:00~11:45 | 영602 | | 2015학번 수강불가 |
| | | 글쓰기 | 3 | 김철민 | 13:00~15:45 | 영602 | | 2015학번 수강불가 |
| | | 글쓰기 | 3 | 오세정 | 09:00~11:45 | 영206 | | 2011학번 이후2학기부터2010학번 이전3학기 |
| | | 글쓰기 | 3 | 권창섭 | 09:00~11:45 | 영207 | | |
| | | 글쓰기 | 3 | 권재영 | 13:00~15:45 | 영206 | | |
| | | 글쓰기2 | 3 | 신도원 | 09:00~11:45 | 영208 | | |
| | | 글쓰기2 | 3 | 송하나 | 13:00~15:45 | 영207 | | |
| | | 글쓰기2 | 3 | 홍원경 | 13:00~15:45 | 영208 | | |
| | | 영어 | 3 | Liet Hoan Hau | 09:00~11:45 | 영409 | 영어강의 | |
| | | 영어 | 3 | Brown Hyon Chol | 09:00~11:45 | 영410 | 영어강의 | |
| | | 영어 | 3 | Brian Daniel | 13:00~15:45 | 영409 | 영어강의 | |
| | | 영어2 | 3 | Cynthia | 09:00~11:45 | 영610 | 영어강의 | |
| | | 영어2 | 3 | Sohyoung Yoo | 09:00~11:45 | 영611 | 영어강의 | |
| | | 영어2 | 3 | Craig Lawrence | 09:00~11:45 | 영611 | 영어강의 | |
| | | 영어2 | 3 | Hue Joshua Lee | 13:00~15:45 | 영610 | 영어강의 | |
| | | 영어2 | 3 | Armando Daniel | 13:00~15:45 | 영611 | 영어강의 | |
| 후마니타스칼리지 | 후마니타스칼리지 | 운동과체육관리 | 3 | 김정애 | 09:00~11:45 | 영112 | | |
| | | 운동과체육관리 | 3 | 김경애 | 13:00~15:45 | 영112 | | |
| | | 고양이와물리학자연계 | 3 | 송종역 | 09:00~11:45 | 영411 | 영어강의 | |
| | | 영화문예비학 | 3 | 송의주 | 13:00~15:45 | 영210 | | |
| | | 영화문예비학 | 3 | 김현관 | 09:00~11:45 | 영302 | | |
| | | 인문학과문화콘텐츠 | 3 | 김기국 | 09:00~11:45 | 영210 | | |
| | | 공학과경영 | 3 | 권민택 | 13:00~15:45 | 영608 | | |
| | | 스포츠와경영 | 3 | 양정 | 09:00~11:45 | 영312 | | |
| | | 공학과윤리 | 3 | 예철해 | 09:00~11:45 | 영608 | 이공계열 학생만 수강 | |
| | | 현대문명비판 | 3 | 이근세 | 13:00~15:45 | 영302 | | |
| | | 한국근현대사의이해 | 3 | 하동현 | | | | 시향오프라인 |
| | | 황하와장강중국역사 | 3 | 이준태 | 13:00~15:45 | 영411 | | |
| | | 통계와인식과윤리 | 3 | 김현수 | 09:00~11:45 | 영203 | | |
| | | 네트워크의미래 | 3 | 유인태 | 13:00~15:45 | | | |
| | | 언어와문화의이해 | 3 | 이혜란 | | | | |
| | | 한문과강강생활 | 3 | 김지훈 | | | | |
| 자유이수교과 | 자유이수교과 | 한문과강강생활 | 3 | 김지훈 | | | | 시향오프라인 |
| | | 한문과강강생활 | 3 | 김지훈 | | | | 시향오프라인 |
| 후마니타스칼리지 | 후마니타스칼리지 | 한문과강강생활 | 3 | 김지훈 | | | | 시향오프라인 |
| | | 한문과강강생활 | 3 | 김지훈 | | | | 시향오프라인 |

* NOTE

1. 온라인강의 : 오전 오후 구분없이 원하는 시간에 수강 가능

2. 글쓰기 및 영어 과목의 학점 : 2011학번 이후 2학기 / 2010학번 이전 3학기

3. 타타칭 강의는 전반기와 후반기 강의 교수님이 다르게 수업이 진행됩니다.

4. 전반기 : 2015/12/22~2016/01/04 *후반기 : 2016/01/05~2016/01/14

4. 전공강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전공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1) 생물 강좌 : 생명과학대학 (031-201-2601)

2) 중국어 강좌 : 외국어대학 (031-201-2201)

3) 수학, 물리, 화학 관련 강좌 : 응용과학대학 (031-201-3801)

4) 컴퓨터 관련 강좌 : 전자정보대학 (031-201-2501)

지식창업교육센터 12월 특강 시리즈

장소 공학관 107호(12/10 추후 공지)

강사 대기업입원진 (취업진로가이드)

B2B기업의 고객가치제안사례
LG CNS, 김우진 컨설팅사업부 수석부장
12/8(화) 10:00~11:30
기업의 투자방법 및 투자사례
한국투자파트너스, 김종필 CIO(최고투자책임자)
12/8(화) 15:00~16:00
미래세대의 창조
필름, 박문서 한국지사 부사장
12/10(목) 15:00~16:00

주관 지식창업교육센터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단

후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취업지원, 한국발명진흥회

경희대학교 지식창업교육센터



기업 ‘사실상 분교표기’… 취업생 ‘답답’

(취업준비생)

입사지원서 ‘캠퍼스 분리표기’ 논란

정혜빈 기자 hb0204@khu.ac.kr

학교측의 홍보 부족으로 주요 기업이 국제캠퍼스(국제캠)와 서울캠퍼스(서울캠)를 입사지원서 상에서 분리하고 사실상 ‘분교표기’를 명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취업준비생이 선호하는 우리나라 4개 그룹(삼성, SK, LG, 현대자동차)의 입사지원서 작성 시 4곳 중 2곳이 학교명 입력란에 양 캠퍼스를 구분해 사실상 ‘분교표기’를 하고 있다. 특히 SK와 현대자동차 그룹은 지원서 작성 시 학교명 입력란에 서울캠만을 ‘경희대학교’로 국제캠은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로 입력하게 돼있다. 이들 그룹은 각각 수십여 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대기업이기에, 이는 일부 취업준비생만 느끼는 당혹스러움은 아니다.

이같은 ‘분리표기’는 현재의 불안정한 취업상황에서 취업준비생들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지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캠퍼스 통합 승인을 받아 2012년부터 서울캠과 국제캠 모두 법적으로 분교이다. 그러나 통합 이후 학교측의 미온적인 홍보로 국제캠 학생들은 ‘분교’의 이미지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반면 성균관대학교(성균관대)는 수원에 위치한 자연과학캠퍼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공격적인 홍보를 해온 결과 우리학교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중 하나가 SK와 현대자동차그룹의 입사지원서에서 양 캠퍼스 모두 ‘성균관대학교’라고 입력하게 돼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그룹 인턴에 지원했던 노민호(생체의공학 2011) 군은 “우리학교는 본·분교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입학해서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말만 있을 뿐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취업진로지원처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현대자동차그룹 인사팀 담당자는 “지원서 작성 시 학교명을 정확하게 표기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좋겠지만 학교 수가 많다 보니 자체적 수정은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며 “학생들이나 학교 측의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는 이상 바꾸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리학교를) 분리해서 표기해 둔 의도는 학과계열별로 구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지만 성균관대를 ‘단일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성균관대도 캠퍼스를 구분해 표기하고 있지 않냐”며 “잘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미지 개선 적극 홍보해 온 성균관대

우리학교와는 다른 모습 보여

담당자는 “학교 측에서 캠퍼스 홍보 리쿠르팅이나 취업박람회 등에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들은 (서울·국제) 캠퍼스가 통합된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서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많은 대학이 얽혀 평가받는 취업시장에서, 다양한 직무의 입사 평가자들이 우리학교만의 분리표기를 양해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

되는 상태다.

국제캠 취업진로지원처 측은 “학생들이 향의할 때 마다 해당 기업에 시정요청을 했었다”며 “다만 아무래도 취업진로지원처 공식 명칭상 중앙부처에서 조치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정책원 기획예산팀 이현아 계장은 “정확히 언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는지는 파악 중이나 캠퍼스 통합에 대해 이미 기업체에 홍보를 했다고 알고 있다”면서 “기업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강요 할 수 없는 입장이라 기업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고 답했다.

“학교 측의 요구가 있으면 수정하겠다”는 기업 측의 답변과 “홍보를 했지만 기업 측에서 수정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학교 측의 답변이 엇갈리고 있다.

이 계장은 “기업에서 통합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분리표기’가 아마도 학생들의 우려처럼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미지에 있어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취업준비생 고충은 담당자의 짐작으로 떨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배동원(산업경영공학 2010) 군은 “취업을 준비하는 국제캠 학생이라면 ‘분리표기’돼 있는 상황으로 누구나 한번쯤 언짢은 기분을 느꼈을 것”이라며 “현재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재학생의 입장을 학교가 다시 한번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학본부의 적극적이지 못한 본·분교 인식개선으로 학생들의 고충은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프라임 사업 소통하라’ 양 캠퍼스 총학 성명서 한 목소리

총학, ‘논의 과정 소통’ 요구

이시은 기자 ditlids77@khu.ac.kr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최근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PProgram for Industry needs Matched Education) 사업과 관련해 대학본부의 일방적 행보가 이어지자 양 캠퍼스 총학생회(총학)가 ‘논의과정의 소통’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은 지난 20일,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은 지난 23일 온·오프라인에 프라임 사업에 대한 성명서를 게재했다. 서울캠 총학은 성명서를 통해 “프라임 사업 참여 여부와 사업 계획 자료를 제공할 것”과 “프라임 사업에 있어 구성원 대표의 의견개진 기회를 줄 것”을, 국제캠 총학은 ‘이전에 있었던 프라임 사업에 관련된 회의록 공개’, ‘이후의 회의에 학교의 3주체(교수, 직원, 학생)가 참석’을 각각 요구했다. 양 캠퍼스 총학은 공통적으로 ‘논의 과정 중 학생 대표의 참여 보장’과 ‘논의 과정의 상세한 내용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대학본부에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제캠 총학 김용석(화학공학 2009) 회장은 프라임 사업에 대해 “그간 본부에서 몇 차례 논의가 있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학생회는 아무런 정보도 들을 수 없었다”며 “학교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이며, 사업 내용에 ‘구성원 합의’라는 항목이 있는데도 대학본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은 적 없다”고 밝혔다.

사업을 주관하는 국제캠 미래정책원 기획예산팀 정구승 팀장은 “아직 뚜렷하게 논의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며 “정원 감축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면 당연히 구성원들의 공식적인 합의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가장 큰 우려는 이대로 가다간 프라임 사업에 ‘대학본부’의 입장만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논의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학교의 ‘인문학 중시’ 방향과 이러한 사업 논의가 맞는 지도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프라임 사업이 ‘유사학과 조정’을 통한 국제캠 이미지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일부의 의견에 대해 김 회장은 “어

쩌면 대학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할 방향과 국제캠이 나아가야하는 방향이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캠 총학은 성명서의 수신처를 ‘부총장실’로 지정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부총장실 측은 총학의 질의서에 대한 회신에서 단과대학 별로 ▲정원의 15%를 대학본부에 위탁 ▲학문단위 개편계획 제출의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프라임 사업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즉 각 단과대학이 해당 대학 정원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한 정원조정을 대학본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합의하거나, 단과대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편할 것인지를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서울캠 총학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 부회장은 부총장실의 답변에 대해 “현재 대학본부의 프라임 사업 대응 방식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강 부회장은 “답변을 보고 ‘단과대에 모든 걸 일임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학문단위 개편을 위한 논의에만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당장 다음 주까지 단과대들이 계획을 원만히 완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구성원 간 소통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것 같아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12월 말에 대학별로 교육부에 최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그는 “이제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대학본부가 각 단과대의 계획을 확인하고, 보완한 후 구성원과 소통의 자리를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 부회장의 또 다른 우려는 부총장실이 밝힌 프라임 사업 추진안 중 구성원 간 합의를 위해 마련한 ‘소통위원회’의 위원단이 대부분 학교 쪽 인물들로 구성돼있다는 것이다. 그는 “소통위원회의 구성 비율이 대학본부 쪽에 기울어있어 프라임 사업 준비에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프라임 사업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기 위해 서울캠 총학은 지난 27일 1인 피켓시위를 통해 부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오늘 오후 4시에 면담이 이뤄질 예정이며 해당 내용은 대학주보 온라인에 실릴 예정이다.

| [서울] 2015학년도 동계계절학기 개설강좌 현황 | | | | | | | | | | | | | | | | | |
|-----------------------------|---------|-----------|----------|-------------|-------------|-------------|-------|------|-----------------|--------------------|------------------|----------------|--------------|--------------|--------|-------------|--|
| 대학 | 이수구분 | 강좌명 | 학점 | 교강사명 | 강의시간 | 강의실 | 언어구분 | 비고 | 미של대 | 전공선택 | 동양미של사 | 3 | 배현진 | 13:00~15:45 | 미208 | | |
| 경영대 | 전공기초 | 경영통계학 | 3 | 김영식 | 09:00~11:45 | 오212 | | | 후마니타스칼리지 | 교양-중핵교과 | 우리가사는세계 | 3 | 조희원 | 09:00~11:45 | 창203 | 2015학번 수강불가 | |
| | | 경제학원론 | 3 | 박원규 | 13:00~15:45 | 오212 | | | | 교양-중핵교과 | 우리가사는세계 | 3 | 서광열 | 13:00~15:45 | 창203 | 2015학번 수강불가 | |
| | | 책임경영 | 3 | 손윤근 | 09:00~11:45 | 오211 | | | | 교양-중핵교과 | 인간의가치탐색 | 3 | 양윤희 | 13:00~15:45 | 창501 | 2015학번 수강불가 | |
| | | 회계원리 | 3 | 나형준 | 13:00~15:45 | 오211 | | | | 교양-기초교과 | 글쓰기1 | 2 | 이호선 | 09:00~11:45 | 창710 | | |
| | | 생산운영관리 | 3 | 김용유 | 09:00~11:45 | 오210 | | | | | 글쓰기1 | 2 | 권기성 | 09:00~11:45 | 창204 | | |
| | 마케팅원론 | 3 | 이종영 | 13:00~15:45 | 오210 | | | 글쓰기2 | | | 2 | 방인식 | 09:00~11:45 | 창711 | | | |
| | 경영정보시스템 | 3 | 김현모 | 09:00~11:45 | 오209 | | | 글쓰기2 | | | 2 | 최정은 | 13:00~15:45 | 창711 | | | |
| | 조직행동론 | 3 | 김영현 | 13:00~15:45 | 오209 | | | 글쓰기2 | | | 2 | 조현주 | 13:00~15:45 | 창204 | | | |
| | 전공필수 | 관리회계1 | 3 | 안지현 | 09:00~11:45 | 오202 | | | | 영어1 | 2 | Jonathan Davis | 09:00~11:45 | 창303 | Basic | | |
| | | 재무관리 | 3 | 김현영 | 13:00~15:45 | 오202 | | | | 영어1 | 2 | Kenny Poirier | 13:00~15:45 | 창303 | Basic | | |
| 문과대 | | 전공선택 | 서양문화강독 | 3 | 박진빈 | 09:00~11:45 | 문308 | 부분영어 | 영어1 | 2 | Gregory Napp | 09:00~11:45 | 창304 | Intermediate | | | |
| | | | 서양근대철학 | 3 | 서광열 | 09:00~11:45 | 문310 | | 영어1 | 2 | 김현정 | 13:00~15:45 | 창304 | Intermediate | | | |
| | | | 시사반역 | 3 | 조재범 | 09:00~11:45 | 문309 | | 영어2 | 2 | Jordan Davidson | 09:00~11:45 | 창403 | Basic | | | |
| | 영한순차통역1 | | 3 | 이현경 | 13:00~15:45 | 창506 | | 영어2 | 2 | Stephen Mangan | 13:00~15:45 | 창403 | Basic | | | | |
| | 영미문화원강 | | 3 | 이주원 | 13:00~15:45 | 문309 | | 영어2 | 2 | Andrew Thompson | 09:00~11:45 | 창404 | Intermediate | | | | |
| 생활대 | 전공기초 | 영어음성학 | 3 | 정환주 | 13:00~15:45 | 문308 | | | 영어2 | 2 | Exan Desforges | 13:00~15:45 | 창404 | Intermediate | | | |
| | | 영문학과장기념기 | 3 | 민승기 | 09:00~11:45 | 창506 | | | 시민교육 | 3 | 오현순 | 13:00~15:45 | 창502 | 2015학번 수강불가 | | | |
| | | 인간과생활환경 | 3 | 채혜원 | 13:00~15:45 | 창507 | | | 시민교육 | 3 | 우대식 | 13:00~15:45 | 창503 | 2015학번 수강불가 | | | |
| | | 현대사회와소비자 | 3 | 배은옥 | 09:00~11:45 | 창507 | | | 후마니타스칼리지 | 생명과그물망-인간·동물·환경_지구 | 3 | 정영숙 | 09:00~11:45 | 창305 | | | |
| | | 전공선택 | 이산수학 | 3 | 박정훈 | 13:00~15:45 | 이서505 | | | 교양-배분이수교과(1영역) | 진화와인간본성 | 3 | 이진아 | 13:00~15:45 | 창305 | | |
| | 이과대 | 전공필수 | 미분방정식 개론 | 3 | 최나리 | 09:00~11:45 | 문402 | | | 교양-배분이수교과(2영역) | 인간과자연지리 | 3 | 이준호 | 09:00~11:45 | 창301 | | |
| | | | 미적분학및연습1 | 3 | 연미정 | 13:00~17:50 | 이서502 | | | 교양-배분이수교과(3영역) | 네트워크기술을통한현재와미래사회 | 3 | 정화영 | - | | 온라인 수업 | |
| | | | 미적분학및연습2 | 3 | 박창훈 | 08:00~12:50 | 이서505 | | | 교양-배분이수교과(4영역) | 축제와세계의문화 | 3 | 허영애 | 09:00~11:45 | 창201 | | |
| | | | 물리학및실험2 | 3 | 여승준 | 10:00~12:45 | 문403 | | 교양-배분이수교과(5영역) | 감각의재국:시각중심주의를넘어서 | 3 | 한정민 | 13:00~15:45 | 창306 | | | |
| | | | 물리학및실험2 | 3 | 강승훈 | 14:00~15:50 | 문301 | | 교양-배분이수교과(6영역) | 부의진화-게임과네트워크 | 3 | 정화영 | - | | 온라인 수업 | | |
| 정경대 | 전공기초 | 경제수학 | 3 | 안지훈 | 13:00~15:45 | 문403 | | | 교양-배분이수교과(7영역) | 시민사회와NGO | 3 | 정복철 | 13:00~15:45 | 창201 | | | |
| | | 경제통계학 | 3 | 유중순 | 09:00~11:45 | 추후공지 | | | 교양-배분이수교과(8영역) | 법,질서,국가 | 3 | 이환경 | 13:00~15:45 | 창205 | | | |
| | | 경제학원론2 | 3 | 유중순 | 09:00~11:45 | 추후공지 | 부분영어 | | 교양-배분이수교과(9영역) | 행복이란무엇인가 | 3 | 신혜영 | 13:00~15:45 | 창712 | | | |
| | | 정치학방법론 | 3 | 구본상 | 13:00~15:45 | 추후공지 | | | 교양-배분이수교과(10영역) | 세계의문화주의자들 | 3 | 송병목 | 09:00~11:45 | 창306 | | | |
| | | 호텔고객만족경영론 | 3 | 최인목 | 13:00~15:45 | 호402 | 영어강의 | | 교양-배분이수교과(11영역) | 음악과관악·중독·음악·문화 | 3 | 조은아 | 09:00~11:45 | 창207 | | | |
| | 전공선택 | 호텔연구방법론 | 3 | 한주형 | 09:00~11:45 | 호401 | 영어강의 | | 교양-배분이수교과(12영역) | 디지털시대의문화 | 3 | 정완 | 09:00~11:45 | 창205 | | | |
| | | 호텔연구방법론 | 3 | 한주형 | 09:00~11:45 | 호401 | 영어강의 | | 교양-배분이수교과(13영역) | 미지의문명-유럽과공존의두터움세계 | 3 | 신현주 | 13:00~15:45 | 창308 | | | |
| | | 호텔연구방법론 | 3 | 한주형 | 09:00~11:45 | 호401 | 영어강의 | | | | | | | | | | |
| | | 호텔연구방법론 | 3 | 한주형 | 09:00~11:45 | 호401 | 영어강의 | | | | | | | | | | |
| | | 호텔연구방법론 | 3 | 한주형 | 09:00~11:45 | 호401 | 영어강의 | | | | | | | | | | |

* NOTE

1. 온라인강의 : 오전·오후 구분없이 원하는 시간에 수강 가능(시험관련은 강의계획서 참고 및 담당 교강사에게 문의)

2. 글쓰기 및 영어 과목의 학점 : 201학번 이후-2학점 / 2010학번 이전-3학점

3. 전공강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전공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1) 경영학 전공강좌: 경영대학 (02-961-0512)

2) 철학, 영어학 관련 전공: 문과대학 (02-961-0221)

3) 의상학, 추가한경, 아동가족, 식품영양학 관련 전공: 생활과학대학 (02-961-0551)

4) 수학, 물리, 지리 관련 전공: 이과대학 (02-961-0887)

5) 경제, 행정 관련 전공: 정경대학 (02-961-9184)

6) 미술 관련 전공: 미술대학 (02-961-0631)

7) 호텔경영 관련 전공: 호텔관광대학(02-961-0802)

4. 학사 일정에 따라 시간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길게 읽기 - 캠퍼스 명칭

▶1면에서 이어짐

하지만 이 중 국제캠에 등록된 외국인 학부과정 재학생 수는 409명으로 서울캠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를 보이면서, 국제캠이 국제화 역량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현재 양 캠퍼스 국제교류처가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상태라 더 이상 ‘국제화 프로그램’이 국제캠의 ‘캠퍼스 특성’으로까지 연계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명칭’ 논란에 관한 구성원들의 우려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국제’라는 명칭 사용이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신문이 조사했던 9일에서 13일까지 5일간 ‘캠퍼스 이원화 구성원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7번 문항 ‘현재의 캠퍼스 명칭이 본·분교 인식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참여자의 71.6%가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국제’ 명칭 사용

불필요한 오해 불러올 수 있어

이 같은 불만사항은 ‘타교의 표기방식’과 ‘서울’이라는 명칭의 특수성으로부터 기인한다. 국내 지방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본·분교 명칭은 ‘건국대학교 서울-글로벌캠퍼스’, ‘한양대학교 서울-ERICA캠퍼스’, ‘동국대학교 서울-경주캠퍼스’ 등 대다수의 학교가 소재지가 서울인 본교에 ‘서울캠퍼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경인(응용수학 2011) 양은 “애초에 타 학교 표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특수 지역 이름이 들어간 명칭은 편견을 가지기 쉽다”며 “현재 우리학교의 명칭은 외부에서 보기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불완전한 통합으로 학내 구성원의 반발을 사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시 ‘서울-글로벌캠퍼스’라는 명칭을 사용중이다.

그간 우리학교의 캠퍼스 명칭에 관한 논의는 본·분교 문제와 궤를 함께해왔다. 우리학교는 1979년 3월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및 재정 대학 증원 억제 정책’에 따라 지금의 국제캠이 위치한 곳에서 통칭 ‘수원대학’을 건립, 1979년 5월 기공식을 진행했다. 이후 ‘수원캠퍼스’의 명칭

을 갖고 운영되오던 국제캠은 2003년, 당시 학교가 대외적으로 홍보해 왔던 것과는 달리 국제캠이 ‘법적 분교’였음이 한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드러나 2000년대 중반 본·분교 문제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된다. 그와 함께 당시 명칭이던 ‘수원캠퍼스’가 문제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캠퍼스 명칭변경은 2005년 본·분교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실무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약 2년 만에 이뤄졌다.

캠퍼스 명칭이 변경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수원캠퍼스’에서 ‘국제캠퍼스’로의 명칭변경 초기 과정에서 서울캠퍼스(서울캠) 구성원들은 본·분교 문제에 관해 분분한 입장을 보였다. 2005년 10월 서울캠 총학생회(총학)이 서울캠 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에선 ‘본·분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2,136명으로 54.6%를 차지했다. 반면 ‘본·분교 문제 해결하지 말자 및 관심이 없다’고 답한 학생은 1,738명으로 44.4%를 차지해 부정적인 의견 또한 상당했다. 이처럼 캠퍼스 명칭변경은 시작부터 험난한 절차를 예고했다.

양 캠퍼스의 본격적인 명칭변경 진행은 2006년 6월 1일 첫 번째 ‘캠퍼스 명칭변경 추진위원회(추진위)’ 회의가 시작되면서 부터다. 당시 양 캠퍼스의 총학생회는 회의를 위한 캠퍼스 명칭 후보를 정하는 두 번의 공모전을 시행했다. 방식은 2차에 걸친 공모전 이후 6배수의 명칭을 선정해 이를 추진위 회의를 거쳐 결정하는 형태였다.

당시 공모전에는 ‘문화-창조캠퍼스’, ‘인문사회의학-국제공학캠퍼스’, ‘평화-아태캠퍼스’, ‘평화-창조캠퍼스’, ‘평화-문화캠퍼스’, ‘기초과학-응용과학캠퍼스’의 명칭이 결정됐으며, 곧바로 수원캠 총학측은 위 6가지 명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결과는 총 2,306명이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인 1,311명이 찬성한 ‘인문사회의학캠퍼스’와 ‘국제공학캠퍼스’가 선택됐다. 이를 바탕으로 수원캠 총학 측은 6월 1일에 추진위 회의에서 서울캠은 ‘인문사회의학캠퍼스’로 수원캠은 ‘국제공학캠퍼스’로 양 캠퍼스 명칭을 제출하기로 했다.

뒤이어 추진위가 결정한 캠퍼스 명칭은 양 캠퍼스 학부 총학, 대학원 총학, 노동조합, 교수협의회, 동문회 등 각 구성원별 동

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기로 결정했다. 동의절차는 2006년 6월 23일까지 3주에 걸쳐 진행되기로 했으며 이후 총장의 승인, 법인의 동의와 이사회 의 승인을 거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수원캠 측, ‘인문사회의학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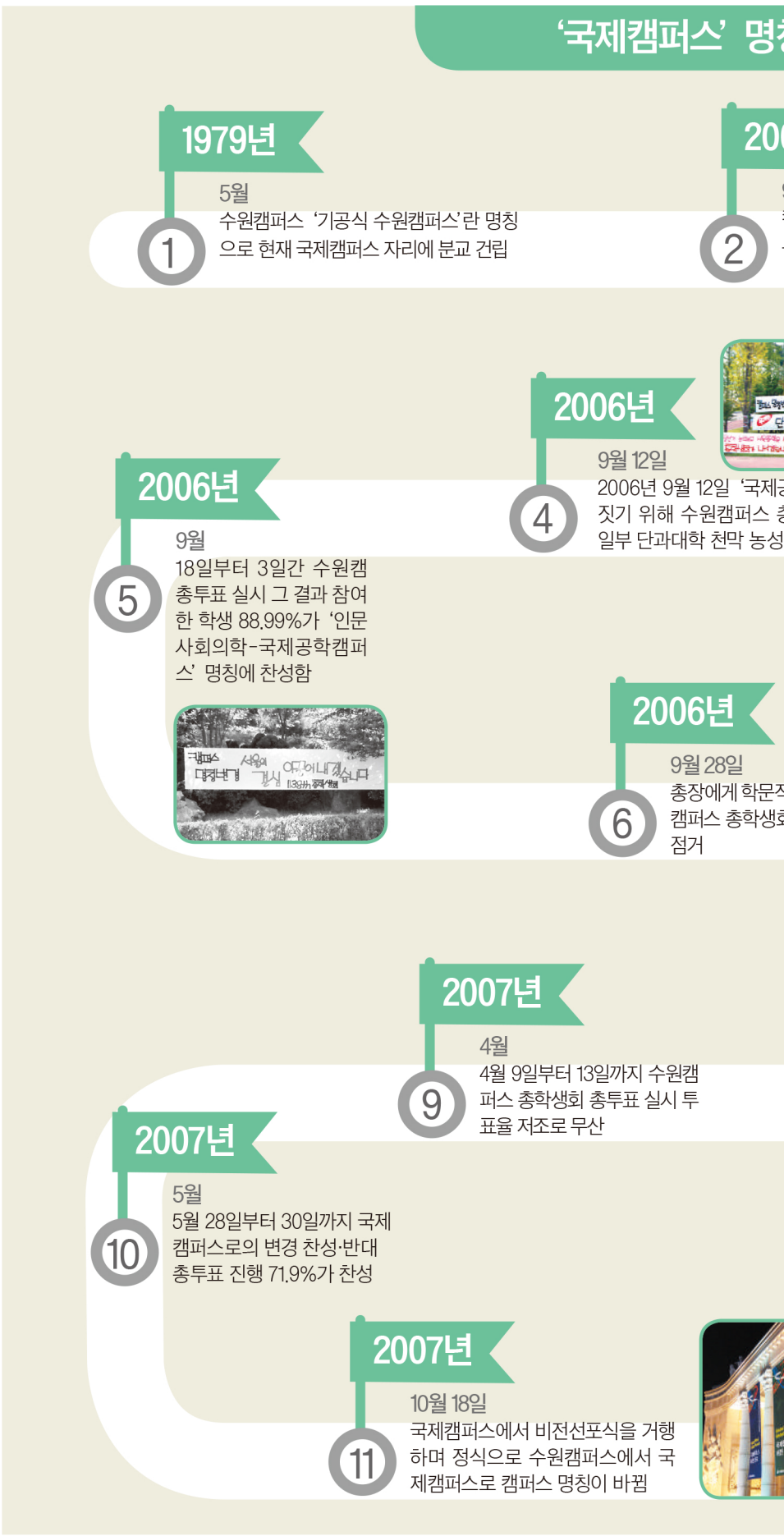
국제공학캠퍼스’ 명칭 제안

그러나 잘 굴러가던 캠퍼스 명칭변경은 첫 위기를 맞게 된다. 1차 추진위 회의가 있고 난 뒤 38대 서울캠 총학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김동현(사회과학 2001) 사무국장은 “서울캠 총학은 캠퍼스 명칭변경에 합의한 바가 없어 변경 여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우선 수렴해야 할 것”이라며 명칭 변경 제안을 유보한 것이다. 이후 7월 6일에 있었던 추진위 회의에서 서울캠 구성원들은 ‘인문사회의학캠퍼스’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당시 서울캠이 반발한 이유는 명칭과 시기의 문제 때문이었다. 6월 당시 추진위 회의 보고에 따르면 서울캠은 총학, 교직원 노동조합 등 80%가 반대 뜻을 표명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인문사회의학캠퍼스’란 캠퍼스 명칭이 서울캠의 모든 계열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서울캠에서는 무용학부, 음악대학, 미술대학, 이과대학에서 반대 성명서를 내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김 사무국장은 “캠퍼스 명칭 변경은 이뤄져야 하나, 구성원의 80%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동의를 구할 단계가 아니다”며 시기가 이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반면 수원캠 총학을 비롯한 다수의 단과대학이 수원캠을 ‘국제공학캠퍼스’로 확정을 짓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9월 12일부터 수원캠 총학과 일부 단과대학 학생회는 외국어대학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자, 수원캠 총학생회 측은 14일부터 단식으로 수위를 높였다. 당시 총학 박한울(국제경영학 2003) 부회장은 “캠퍼스 명칭변경 사안이 이행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진행할 것”이라며 입장을 공고히 했다. 단식과 더불어 18일부터는 3일간 후보 명칭 ‘인문사회의학-국제공학캠퍼스’의 찬반을 최종 수렴하는 수원캠퍼스 총투표가 시행됐다. 결과는 참여한 4,738명의 학생 중 4,317명의 찬성표로 찬성률 약 88.99%

구성원 사이에서도 캠퍼스 명칭 의견



2016학년도 전기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전공

| 구 분 | 학 과 | 전 공 |
|------|----------|--------------------------|
| 석사과정 | 글로벌기업법학과 | 글로벌기업법전공, 미국법전공, 자산관리법전공 |
| | 공공법학과 | 입법전공, 공법전공, 경찰·안전법전공 |
| | 중국법학과 | 중국법전공 |
| | 지적재산법학과 | 지적재산법전공, 인터넷법전공 |
| | 조세법학과 | 조세법전공 |

● 장학제도

| 구 분 | 장학금 | 지급기준 |
|--------|--------------|-----------------------------|
| 공무원장학 | 수업료 25%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 공무원 |
| 공공기관장학 | 수업료 25%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재직자 |
| 외국인장학 | 수업료 30% |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
| 평생교육장학 | 수업료 20% | 사이버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
| 조교장학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조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임용된 자 |

※ 국가고시장학, 성적장학, 모범장학, 총장장학 등 기타 장학제도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강의 - 주중(아침) 및 주말 개설

- **경회전형 일정**
- 원서접수: 2015. 11. 16(월) ~ 12. 4(금)
 - 전 형 일: 2015. 12. 5(토) 10:30
 - 접수방법: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접수(khsb2670@khu.ac.kr)

● **전원료: ₩50,000**(입금계좌: 하나은행 278-910030-40505 / 예금주: 법무대학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대학교(학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학업계획서 1부

※ 문의처
· 전화: 02 - 961 - 0905 · 홈페이지: interlaw.khu.ac.kr

핵심교양 이수면제 신청안내

- **신청대상** : 2004~2007학번 재학생 중, 급급기 현재 면제 받고자 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지 않으며 이수하지 않은 자
- **이수면제 대상과목(학점부여 없음)**
 - 가. ‘대학영어’ 나 ‘사고와 표현’, ‘보고서작성과 발표’, ‘성명과학논문작성법’
 - 다. 전산영역의 경우 이수요건 폐지로 인하여 이수면제 제도 폐지
- **면제기준 및 자격**
 - 가. 대학영어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 1) 공인영어 시험능력시험 TOEFL, TOEIC, TEPS 일정점수 이상자
 - 2) 국제화 추진 TOEFL, TOEIC, TEPS 전형 입학자
 - 3) 영어권 국적 외국인 특례입학자
 - 4) Intensive Program(DEEP, LEAP, REACH)이수자
 - 5) 국제교류처주관 영어권 학점교류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

[이수면제 기준표]

| 면제종류 | 계열 | 대학 | 면제기준 | | | | | 면제내용 |
|---------------|----------------|---|--------------|----------|-----------|-----------|----------------------|------|
| | | | TOEFL CBT | IBT | TEPS | TOEIC | G-TELP | |
| 공인영어시험 능력자 | 외국어계열 사회계열 | 외국어대학 국제·경영대학 | 207 이상 | 76 이상 | 600 이상 | 700 이상 | 66 (Level2) 이상 | 과목면제 |
| |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 전자정보대학 응용과학대학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우주과학과) | 193 이상 | 69 이상 | 551 이상 | 650 이상 | 57 (Level2) 이상 | |
| | | 공과대학 생명과학대학 응용과학대학(응용화학과) | 190 이상 | 68 이상 | 530 이상 | 640 이상 | 56 (Level2) 이상 | |
| | 예체능 계열 | 체육대학 예술·디자인대학 | 147 이상 | 51 이상 | 400 이상 | 510 이상 | 57 (Level3) 이상 | |

* 외부 공인기관 자격증 제출은 매 학기 지정하여 신청 기간에 신청서와 성적표(원본)를 제출한다.

| 면제종류 | 자격 | 면제내용 |
|--------------------------|--|------|
| 국제화추진 전형입학자 | 국제화추진 TOEFL TOEIC 전형 입학자 | 과목면제 |
| 특례입학자 (영아권) | 영어권 국적 외국인 또는 영어권 교포자녀, 영어권 재외국민 | 과목면제 |
| Intensive Program 이수자 | 국제교류센터가 인정하는 - 재학 중 영어권 학점 교류지아학 연수자로 선발된 자, 외국 영어기관의 과정을 수료하고 상 급성적을 취득한 자에 한함. - 영어권 국가에서 학점 인정 가능한 영어 어학연수/과정외국대학 대학 부설 및 공인 교육기 관 Program)에서 48시간(3시간X16주) 이상 이수한 후 고급 성적을 취득한 자 | 과목면제 |
| Intensive Program 이수자 | 평생교육원 DEEP, 국제교육원 LEAP, REACH 집중 프로그램 과정을 출석률 80% 이상, 성적상급수준으로 수료한 자. | 과목면제 |

- *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 * Intensive Program 이수자들은 증명서류 제출한 자에 한하여 상황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며, 통과자에 한하여 과목을 면제한다(신청 기간에 제출)
- * 공학인증(ABEEK)대상자는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영어 학점 인정 불가

나. 외국어대학 대학영어 / 전문영어 이수 면제기준
※ 외국어대학 핵심교양 이수면제 예외사항
- 외국어대학은 학과적 특성에 의해 특정과목 수강으로 ‘대학영어’와 ‘전문영어’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음
- 자신의 재전공이 아닌 타 전공의 외국어, 2단계 이수를 이수하는 것으로 핵심교양 이수를 대체할 수 있음

[대체교과목]

| | 제1 단계 | 제2 단계 | 총 이수학점 |
|----------|-------|----------|--------|
| 초급중국어회화1 | | 초급중국어회화2 | 6 |
| 일본어강독1 | | 일본어강독2 | 6 |
| 스페인어1 | | 스페인어2 | 6 |
| 러시아어1 | | 러시아어2 | 6 |
| 초급프랑스어 | | 초급프랑스어2 | 6 |

※ 상기과목으로 이수면제를 신청하는 외국어대학 소속 학생은 외국어대학행정실(T0301201~2201)에 별도 접수 바랍니다.

다. 사고와 표현 영역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1) 1단계: 독후감 평가 80점 이상을 득한 후 구술시험 통과자에 한하여 2단계 시험 자격 부여
2단계: 글쓰기 시험 80점 이상

[이수면제 기준표] * 신청서 제출은 매 학기 지정하여 신청 기간에 제출한다.

| 단계 | 내용 | 평가 방법 | 학점 | 비고 |
|-----|----------------------------------|-----------------------------|--------------|---------------------------|
| 1단계 | 독후감 평가 (관정도서 중 3편을 읽고 독후감 제출) | 독후감 80점 이상 통과자에 한하여 구술시험 | P / F로 부여 | 단계 합격시 2단계 시험 자격 부여 |
| 2단계 | 글쓰기 시험 (교재 내용 이해도 평가 / 논술 시험) | 80점 이상 통과 | | |

라. 전산영역 이수면제 기준 및 자격: 전산영역의 경우 이수요건 폐지로 인하여 이수면제 제도 폐지

- **신청기간** : 2015.12.01(화) ~ 2015.12.11(금) 17:00 까지
- **신청장소** :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멀티미디어교육관 507호
- **신청자 유의사항**
 - 가. 2015-2학기 현재 상기과목을 수강 및 이수한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나. 본 제도는 일정능력보유자에게 과목이수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학점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 다. 신청자격이 있어도 본 이수면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목이수를 면제받을 수 없음.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람(tel. 031-201-3401~5)
- **제출서류**
 - 가. 신청서 1부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나. 증명서류 원본

기획

‘이과대학·응용과학대학’, ‘특성화’인가 ‘유사학문’인가?

설립부터 끊임없는 ‘중복학과’ 논쟁 ... 순수·응용 ‘동시 운영’은 법적 본교 중 유일

자연계열 캠퍼스간 유사학과 논란

이시은 기자 dtdlms77@khu.ac.kr

최근 캠퍼스 간 유사학과에 관한 논의가 ‘국제캠 학생은 영어학부 다전공 불가?~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글카)-영어학부 유사학과 논란’ 기사(대학주보 1597호)를 통해 불거진 바 있다. 해당 단과대학은 학과의 강의규모 축소를 우려해 위와 같은 ‘캠퍼스 간 다전공 금지’ 규정을 적용, 각 캠퍼스 학생 전체의 다전공을 막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학교 측에서 유사학과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관련 논의는 재학생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른 캠퍼스 간 유사학과로까지 번지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단과대학이 바로 ‘이과대학·응용과학대학’이다. 실제로 대학본부 학사담당 관계자는 “과거 응용과학대학 역시 글카와 마찬가지로 캠퍼스 간 다전공을 막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학사지원과는 응용과학대학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두 단과대학의 ‘유사성 논란’은 국제캠캠퍼스(국제캠) 설립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응용과학대학은 1985년, 기존에 국제캠에 존재해오던 이공대학으로부터 확장된 자연과학대학(물리학과, 수학과, 화학과, 우주과학과, 환경학과, 유전공학과)을 모태로 한다.

응용과학, 최초 국제캠 공학계열의 ‘기초과목’ 위해 신설

응용과학대학 안광현(응용화학) 학장은 “원래 80년대에 공과대학이 (서울캠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이과대학이 함께 내려오도록 돼 있었다”며 “하지만 여러 반발로 인해 이과대학이 내려오지 못하게 되면서, 공학계열의 기초과목을 가르칠 단과대학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며 설립 당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도 응용과학대학은 물리학 및 실험, 미분적분학 등 국제캠 자연계열 전공기초 전체를 담당하고 있다.

이후 10여 년간 끊임없이 ‘중복학과’ 논란에 시달려오던 국제캠 자연과학대학은 결국 97년도 시작된 대대적인 학사구조 개편의 여파로 99년도 해체된다. 이후 물리학, 수학 등의 학과는 ‘물리 및 응용물리



전공’과 같은 명칭으로 전자정보학부에 소속됐고, 화학과 역시 학문 단위를 이동해 공학계열 일부 학과와 함께 학부 편제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지속됐다. 안 학장은 “전자정보학부에 소속된 물리학 등의 전공이 학과 정원 충원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학부제(1학년때 해당 학부로 입학해 2학년때 학과를 선택하는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전자정보학부로 입학했던 1학년들의 선호도가 전자·컴퓨터 계열 등에 몰렸던 것이다. 결국 2009년도에 ‘자연과학대학’은 ‘응용’을 지향점으로 삼아 4개 학과(응용물리, 응용화학, 응용수학, 우주과학)를 편제로 다시 만들었다.

하지만 2012년도 캠퍼스 법적 통합을 거치면서 논란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해당 학과들이 ‘응용’에 맞춰 커리큘럼을 바꾸었다 보니 기존의 이과대학 과목을 포함해 전자·전과공학, 화학공학 등 공학계열에서도 고학년 과목에서까지 일부 유사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안 학장은 “유사 내용이라든가 각 학과에서 가르치는 지향점이 조금씩 다르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의

반응은 다르다. 전자·전과공학을 다전공하고 있는 이수인(응용물리학 2011) 군은 “아무래도 전자·전과공학과 응용물리는 유사한 내용이 많은데, 같은 내용을 또다시 수강해야 하니 당황스럽다”며 “관련 강좌에 대해 배운 내용이 있다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전과공학은 응용물리학과와의 다전공생 43명 중 27명이 다전공을 하는 선호도 1순위 학과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응용과학대학 학사담당 관계자는 “해당 과목들을 다 인정해 준다면 아무래도 학과 강좌 개설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교육의) 지향점 측면에서도 해당 학과에서 수강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경계에 선 학문의 ‘정체성’ 속에서 학생들은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이처럼 학부 수준에서 ‘응용과학’과 기존의 ‘순수과학’을 세분화해 함께 운영하는 대학은 법적 본교들을 제외하면 우리학교가 유일하다. 문제는 이 같은 학문단위의 구분이 대학본부가 진정한 ‘교육’을 위해 해당 학과들을 지정해 발전시킨 것이 아닌, 캠퍼스 간 중복학과를 조정하지 못해 99년

학사구조 개편 도중 ‘어쩔 수 없이’ 탄생시켰다는 것에 있다.

단국대학교(단국대)의 경우, 2014년 본·분교 법적 통합을 진행하기 2년 전부터 기존에 존재하던 천안캠퍼스의 ‘응용물리학과’와 ‘응용화학’을 죽전캠퍼스의 학과들과 통합했다. 이들은 통합시에 학부의 응용관련 학과들을 모두 중복학과로 지정했다. 단국대 김종규(화학) 교수는 우리학교의 화학교육 커리큘럼을 분석하며 “사실상 캠퍼스 간에 다루는 내용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평했다.

전문가들, ‘순수·응용 커리큘럼에서 큰 차이 없다’

고려대학교(고려대) 역시 세종캠퍼스에 ‘디스플레이반도체 물리학과’와 일반대학원에 ‘응용물리학과’가 있지만 본 캠퍼스에는 물리학과만 개설돼 있다. 고려대 조동훈(물리학) 교수는 “따지고 보자면 물리학과 과목 전체가 응용물리학인데 굳이 (학과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이 아닐까 싶다”며 “적어도 안암캠퍼스에는 ‘응용물리학’이라는 학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한양대 역시 ERICA캠퍼스에만 ‘응용물리학과’, ‘응용화학’, ‘응용수학과’가 있다. 본 캠퍼스에서는 공학계열과 순수 자연계열만이 존재한다.

우리학교를 제외하곤 법적 본교 중 유일하게 순수 자연계열과 ‘응용화학’을 동시에 운영해왔던 경북대학교(경북대)는 2014년도 2학기를 마지막으로 해당 학과를 같은 단과대학 내 소속인 ‘화학공학과’와 통합했다.

한편, 서울대학교와 경북대는 각각 ‘응용생물화학부’, ‘응용생명과학부’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만, 이들 학부는 모두 ‘농업생명과학대학’ 소속으로 주로 ‘식물균병학’, ‘해충방제학’, ‘농약학’, ‘토양환경화학’ 등 농업관련 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처럼 응용과학으로의 세분화는 학부과정에서 순수과학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법적 본교’에서 본 캠퍼스와 학과를 차별화하는 데 쓰이고 있어 자칫 국제캠의 대외적 이미지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경우 타 대학과 같은 통합합식 해결책은 요원할 전망이다. 이과대학 측에서 ‘순수학문’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캠퍼스 이전을 적극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과대학 이기태(생물학) 학장은 “본디 순수 자연과학은 사물의 ‘본질’을 보는 것이고 그쪽(국제캠)의 응용과학은 ‘사람’을 보는 것이다”라며, “과거 이전논의가 있었지만 단순한 ‘외형적 분류’에는 우리 교수님들이 반대를 했었다”고 말했다. 학생들 역시 거센 반발을 예고했다. 이과대학 학생회 김준용(정보디스플레이학 2010) 회장은 “유사학과라는 말은 같은 점도 있지만 엄연히 다르다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국제캠으로의 이전 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고 응용과학대학이 선불리 움직일 수도 없다. 응용과학대학의 3개 학과(응용물리학, 응용화학, 응용수학)는 국제캠 4개 단과대학의 자연계열 전공기초 전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캠은 약과과학과의 4개 기초과목과 치의예학과 1개 기초과목 등을 제외하곤 모두 각자의 학과에서 전공기초를 자체 개설 중이다. 이처럼 서로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유사학과 문제는 답보상태를 이뤄 국제캠 재학생들의 대내외적 피해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 박자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일의 날씨와 같은 소소한 정보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khunews@khu.ac.kr



http://media.khu.ac.kr/khunews

서울캠 총학 ‘취향저격’, 국제 ‘KHU&KHU’ 선본 당선

2016학년도 학생회 선거결과

조민호 기자 luve5678@khu.ac.kr
이성민 기자 lsm1590@khu.ac.kr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치러진 선거에서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에 ‘취향저격’ 선거운동본부(선본)이, 총여학생회(총여)에 ‘투게더’ 선본이 당선됐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과 총여는 ‘KHU&KHU’ 선본이 당선됐다.

서울캠 총학 선거는 전체 재적인원 12,057명 중 6,747명(55.96%)의 유권자가 투표해 찬성 4,820명(71.44%), 반대 1,411명(20.91%)으로 ‘취향저격’ 정주희(사학 2012) 정후보와 단재민(미술학 2010) 부후보가 당선됐다. 55.96%의 투표율은 최근 5개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정주희 당선자는 “지금 우리 앞에는 프라임사업, 취업 등 다양한 문제들이 놓여있다”며 “학생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총학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국제캠은 전체 재적인원 중 4,606명이 투표에 참가해 그 중 3,393명(73.66%)의 찬성으로 ‘KHU&KHU’ 선본의 김병경(체육학 2009), 박수지(산업경영공학 2014) 후보가 각각 정, 부회장으로 당선됐다. 김병경 당선자는 “선거기간 동안 느낀 ‘진심은 통한다’는 말을 잊지 않고 가슴으로 진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며 “학생들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고 눈높이를 낮춰 학생회의 신뢰를 얻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선, 투표율 50% 넘기면 전부 당선 확정돼

총여 선거는 서울캠 6,400명의 재적인원 중 3,642명(56.91%)의 유권자가 투표해 찬성 2,620명(71.94%), 반대 737명(20.24%)으로 ‘투게더’ 옥지은(철학 2010) 정후보와 성미래(아동가족학 2014)부후보가 당선됐다. 옥지은 당선자는 “학내 여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며 “지지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국제캠은 전체 재적인원 중 2,201명의 유권자가 투표했고, 그 중 1,764명(80.17%)의 찬성으로 이유진(국제학 2015), 김자향(국제학 2015) 후보가 각각 정, 부회장에 당선됐다.

서울캠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도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했다. 25일 저녁 선거 개표결과,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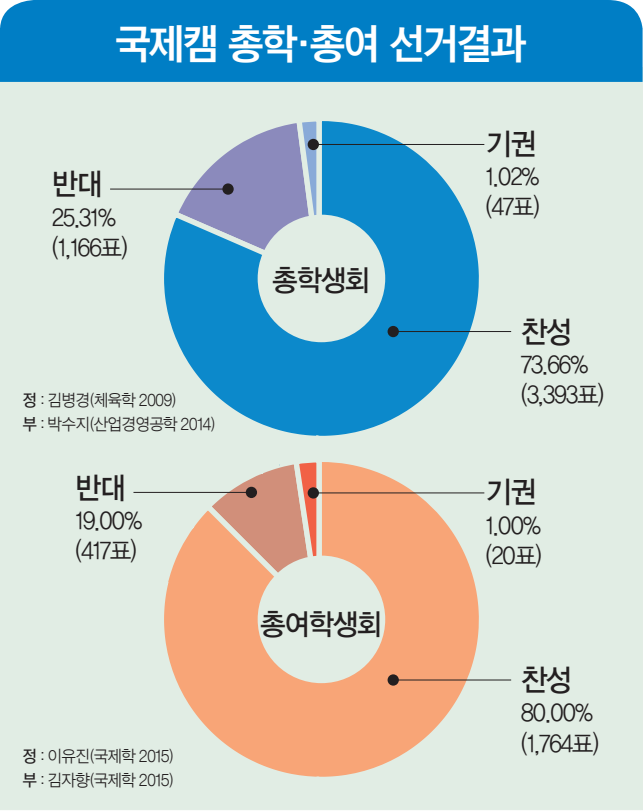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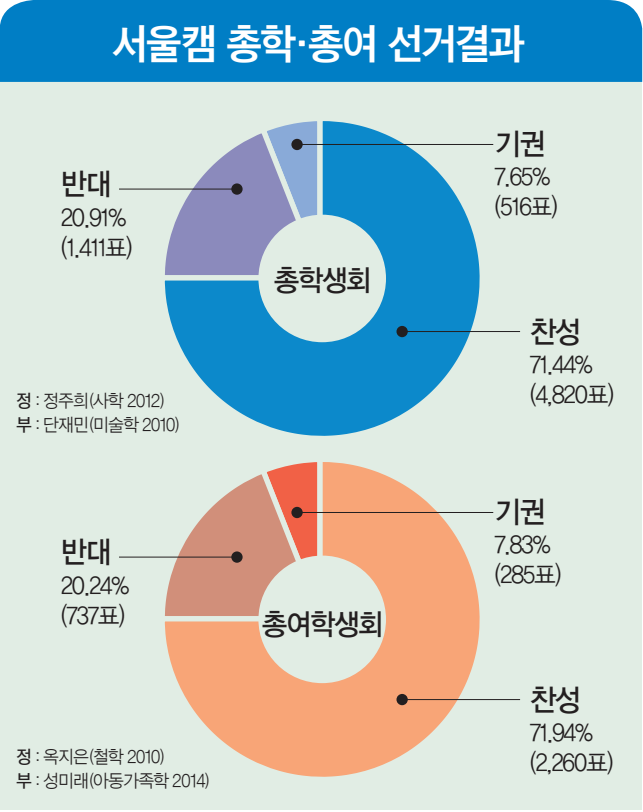
한 정경대학을 제외하고, 단선으로 임후보한 선본들은 재학생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2/3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정경대학은 27일까지 투표를 연장한 끝에 단선으로 나온 선본이 당선됐다. 국제캠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선거가 진행됐으며, 24일 선거 개표 결과, 단선으로 나온 선본들이 전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서울캠 선거는 지난해에 새로 도입한 전자투표제로 진행됐다. 언론정보학과 등 일부 과 학생회 투표만 종이로 된 투표용지를 사용했으며, 국제캠은 별도의 투표용지를 만들어 선거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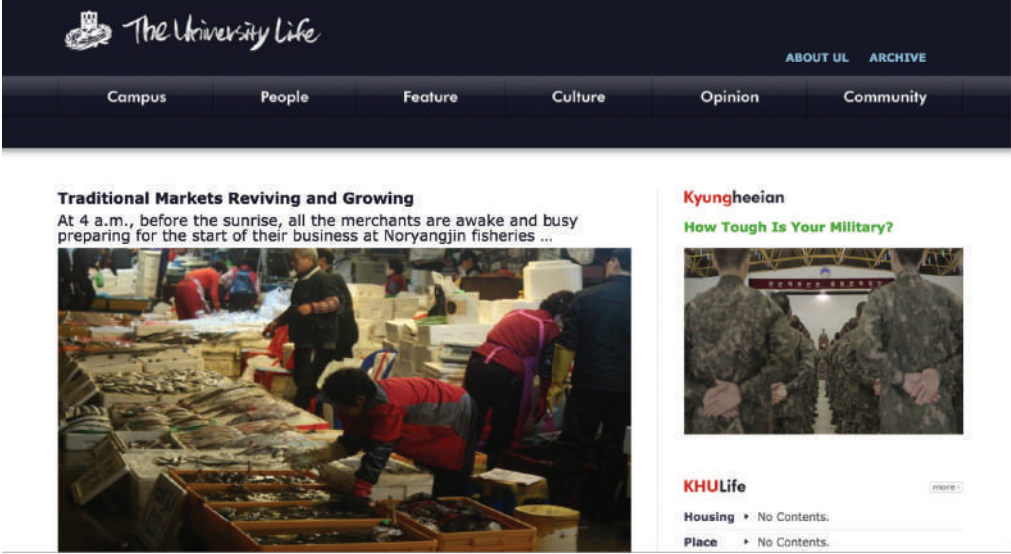
선거와 개표 과정에서 잡음도 이어져

한편, 이번 선거 과정 중 과도한 투표 독려 행위로 인해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과 에브리타임 등 SNS커뮤니티에 상당한 수의 불만 제보가 올라왔다. 익명의 제보자는 “선거를 독려한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계속 투표 했다고 물어보고 팔을 잡아 끄는 행위를 보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며 “선거 독려가 또 다른 선거 운동을 보는 것 같았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몇몇 단과대학은 선거 이후 공식적으로 게시판을 통해 당선여부와 투표 결과를 바로 공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정이(아동가족학 2012)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총학 선거 세칙에는 당선을 공고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단과대학 선거에는 별도의 세칙을 정해 운영한다”며 “당선 공고는 각 단과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국제캠 총학 선거 개표에서는 공과대학 제 1투표소 선거인 명부 한 부가 유실돼 해당 투표함을 개봉조차 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장 김상준(기계공학 2010)은 "바쁜 시간을 내서 투표해 주신 분들께 죄송하다"며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선거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 단과대학 선거결과 | | | |
|-----------|---|--|---|
| 문과대학 | 정 : 박원규 (사학 2014) 부 : 이소현 (국어국문학 2013) | 무용학부 | 정 : 이주희 (무용 2014) 부 : 현재은 (무용 2014) |
| 정경대학 | 정 : 황선경 (정치외교학 2011) 부 : 김애린 (언론정보학 2013) | 자율전공학과 | 정 : 허호재 (자율전공학 2014) 부 : 김민지 (자율전공학 2014) |
| 경영대학 | 정 : 최상현 (경영학 2012) 부 : 김준수 (경영학 2012) | 공과대학 | 정 : 박준영 (기계공학 2011) 부 : 임효민 (정보전자신소재공학 2011) |
| 호텔관광대학 | 정 : 박한진 (조리·서비스경영학 2014) 부 : 최지원 (문화관광콘텐츠학 2014) | 전자정보대학 | 정 : 주일규 (전자·전파공학 2011) 부 : 권현선 (생체의공학 2014) |
| 이과대학 | 정 : 이지웅 (물리학 2011) 부 : 이하늘 (정보디스플레이학 2013) | 응용과학대학 | 정 : 윤준한 (우주과학 2011) 부 : 송채윤 (응용수학 2014) |
| 생활과학대학 | 정 : 유영선 (아동가족학 2014) 부 : 허윤슬 (주거환경학 2014) | 생명과학대학 | 정 : 김대일 (식품생명공학 2013) 부 : 신승오 (유전공학 2015) |
| 한 의과대학 | 정 : 김창민 (한의학 2013) 부 : 김재현 (한의학 2013) | 국제대학 | 정 : 국주호 (국제학 2013) 부 : 윤민지 (국제학 2015) |
| 약학대학 | 정 : 이주영 (약학) 부 : 최은정 (한약학 2014) | 외국어대학 | 정 : 감유경 (일본어학 2014) 부 : 김주와 (중국어학 2015) |
| 간호과학대학 | 정 : 박수민 (간호학 2014) 부 : 김다경 (간호학 2014) | 예술·디자인대학 | 정 : 권미소 (의류디자인학 2011) 부 : 양길도 (디지털콘텐츠학 2010) |
| 음악대학 | 정 : 김문재 (성악 2010) 부 : 김진수 (기악 2014) | 체육대학 | 정 : 신영광 (체육학 2010) 부 : 하해성 (체육학 2011) |
| 미술대학 | 정 : 허 건 (조소 2011) 부 : 정은수 (한국화 2012) | ※ 일부 단과대학은 관련 사항을 게시하지 않아 지면에 실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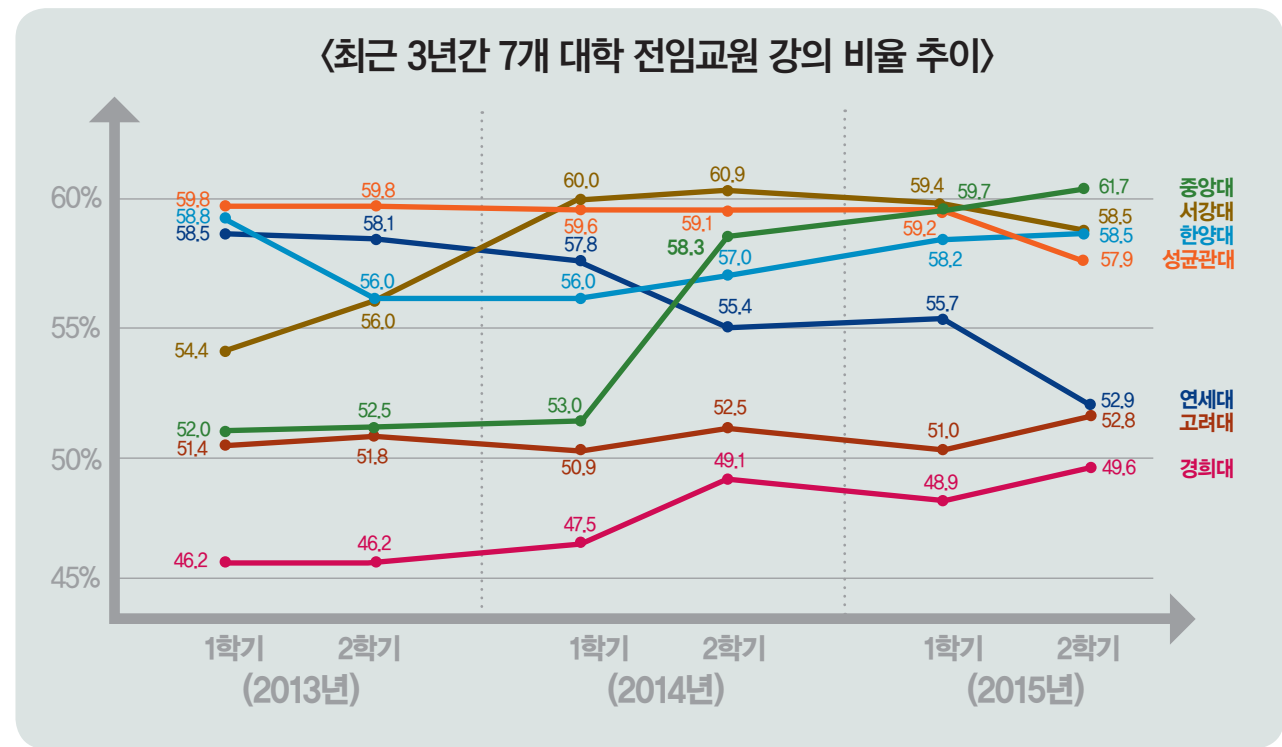
교내 한국인, 외국인 학생들의 다양한 소식을 세계 곳곳에 전해드립니다. 유학생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비롯한 학내 이슈를 발로 뛰며 취재합니다. 또한 교환학생과 해외자매대학의 관련 소식을 전하며 경희대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월 발간되는 잡지는 양 캠퍼스에 총 3,000부 배포되며 140여 개의 해외자매대학으로도 발송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영어신문사로 거듭나겠습니다.

Our mission is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yung Hee University by providing space in which communication takes place among each other in English.” If you have any comments or suggestion for improving the magazine, please, contact us on unilife@khu.ac.kr

경희대학교 영어신문사 The University Life

보도

책임시수 상향 추진… 내년부터 적용 교수의회, “절차와 소통 무시한 일방적 처사”



전임교원 책임시수 상향

백승철 기자 scho1357@khu.ac.kr

전임교원 책임수사가 현행 연간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상향 조정 된다. 대학은 지난 24일 합동교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키고, 법인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수회의 측은 절차적 정당성과 논의과정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신문은 그동안 여러 차례 기사를 통해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낮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대학보다 낮은 전임교원 책임시수 상향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공시된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49.3%로, 사립대학 평균인 62.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경쟁대학(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이라 할 수 있는 6개 대학 중에서도 가장 낮다.

지난 20일 부총장단 명의로 전체 교수에게 발송된 서신에 따르면, '현재 우리대학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50% 이하며, 국내 주요대학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대내·외 상황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책임시수를 15시수로 변

경'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책임이 수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려' 등을 주장하며 전임교원 책임시수 상향조정에 대해 반대의를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연구에 전담할 교수와 교육에 전담할 교수로 나눠 전임교원 책임시수를 이원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대학 전임교원 연간 책임시수 비교

경희대 12시간

성균관대 - 15시간 학부 9시간 의무강의, 학기 3시간 의무강의

고려대 12시간

한양대 - 15시간 학부 1강좌 의무강의, 주당 6시간 의무강의

서울대 18시간

연세대 12시간

중앙대 12~15 시간



‘옷장을 열면’ 안 입는 옷이 한가득!

청운관 지하 2층 의류편집숍 '옷장을 열면'

최재원 기자 jankin1997@khu.ac.kr

【서울】 지난 25일 청운관 지하 2층 학생식당 입구 옆 공간에 ‘웃장을 열면’이라는 의류 편집숍이 문을 열었다. ‘웃장을 열면’은 일반인이나 의류 제작자에게 물품을 받아 대신 판매해 수수료를 받는 가게다. 이 편집숍의 운영을 총괄하는 담당자인 채수영(언론정보학 2012) 군을 만났다.

채 군은 지난 9월 생활협동조합(생협)이 주관한 대안프로젝트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돼 사업 준비에 쓸 200만 원과 시설 투자를 위한 500만 원을 지원받았고, 창업을 위한 학교 공간 일부를 제공받아 이 편집숍을 차리게 됐다.

채 군은 주변 친구들로부터 소위 말하는 ‘패션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곤 했다. 그는 “예전부터 도대체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마네킨에 입혀놓은 대로 구입하거나, 점원에 게 어울리는 옷들을 무조건 골라달라고 부탁했다”는 웃지 못 할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그가 패션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다. 단지 ‘옷 고르는 감’이 다소 부족했을 뿐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채 군은 유

명 패션잡지를 찾아 읽거나 사람들의 옷차림새를 관찰해 사진으로 남겼다. 또한 패션 위크(Fashion week)에 열리는 패션쇼를 관람하고 칼럼을 쓰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 뒤, 페이스북 ‘옷장을 열면’ 페이지를 개설했다.

패션관련 여러 활동을 통해, 채 군은 성공가도를 달리는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류학도들과 신진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옷을 알리기 위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하는지 알게 됐다. 그는 “디자이너들이 원하는 건, 자기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라며 “그들의 브랜드를 경히 구원이라는 소비자에게 알려,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기획한 창업 프로젝트 ‘웃장을 열면’은 일반인에게 중고 의류나 액세서리 등을 받아 대신 판매해 수수료를 받는 플리마켓의 형태를 띤다. 또한 온라인 패션몰에서 물품을 조달받아 이를 판매하기도 한다. 하지만 ‘웃장을 열면’ 프로젝트가 가진 본연의 목적은 ‘의류학도나 신진 디자이너들에게 그들이 제작한 옷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 그들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점검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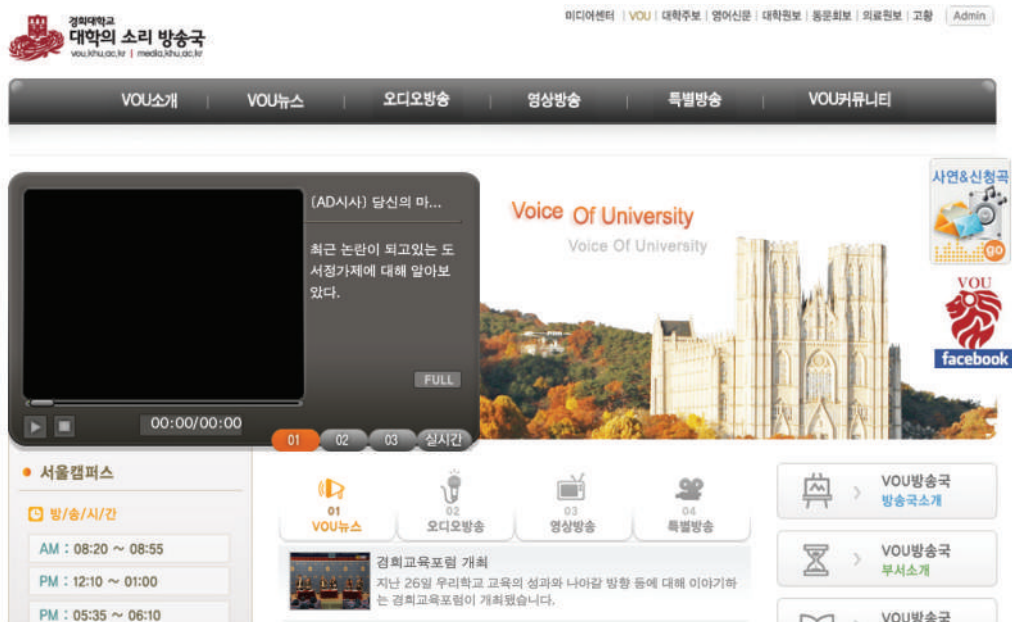
수상 이유에 대해 채 군은 “창업보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한 대회였다면 분명 떨어졌을 거다. 대안사회 구상에 초점을 둔 생협은 이윤추구에 중점을 두지 않는 ‘웃장을 열면’ 프로젝트의 목표와 일치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웃장을 열면’이 뭔가 대단한 변화를 이끌어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Voice Of University, 대학의 소리 방송국이라는 이름의 V.O.U는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바탕으로 건전한 학풍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 학내 정보를 전달하고,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을 방송하며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V.O.U는 항상 경희 구성원과 대학의 지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ی겠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소리 방송입니다.



경희대학교 대학의소리방송국

취업의 세일즈 포인트, 지식창업교육

전문가 칼럼 - 지식창업교육

오환섭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정부가 연일 대학교육개혁과 관련 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프라임(PRIME)이라는 것으로 우리대학도 여기에 도전장을 내 려고 연일 바쁜 것 같다. PRIME은 P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의 약어로, 인력 을 공급하는 대학교육과 산업의 요 구에서 생기는 미스매치부분을 해소 해 사회변화와 산업수요에 맞는 체 질로 대학교육을 개선하는 것이 목 적이다. 이 문제는 약 10년 전 전경련 의 ‘대학졸업생 쓸만한 인재가 없다. 재교육하는데 2조 수천억이 든다’는 기사가 발단이 돼, 대학교육협회의 를 중심으로 전경련과 재경부가 공 동으로 ‘대학의 사회기여도 평가’라 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 연 구의 핵심은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 키는 대학혁신이었고, 그 중 공학교 육의 사회기여도 평가가 2007년부터 ‘산업계관련 대학평가’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5년 동안의 결과를 보 면 산업계가 중요하다는 것과 교수가 중요하다는 것이 상당부분 다른 것 으로 나타났다. 왜 그럴까?

산업계와 대학에서 실제 배출 하는 인재 크게 차이

대학과 산업은 인재양성과 활용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출 발한다. 산업은 우선 대학이 길러낸 인재를 현업에 투입했을 때 문제해결 능력이 있느냐 하는 ‘유용성’에 중점 이 있다면 대학은 졸업생이 졸업 후 어떻게 30년을 서바이벌 할 수 있을 까 하는 ‘지속가능성’에 교육의 고민 을 두고 있다. 유용성과 지속가능성, 둘 다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 조건이다. 정부는 이 교육 역량을 통 해 양적 질적 미스매치의 해소뿐 아



니라, 현장 중심의 창의적 교육 모델 을 인재상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의 진로역량을 강화해, 대학생들 의 사회진출률을 보다 쉽게 열어보자 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은 학생보다 교수의 입장이 우선이고 해야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설 정해 왔다. 그 결과 프라임사업이 우 리에게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산업과 대학이 말하는 인재의 동등 성은 인재상과 학습성과로 소통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대 학의 대응이 같으려면, 교육에 대한 상호개념과 용어의 정의가 같아야 한다. 교육의 동등성(등가성)은 인재 상과 학습성과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인재상은 진로의 의미로 일하고 싶 은 업무분야를 특징지우는 데 비해, 학습성과는 그 분야의 업무수행역 량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공학인증에 서 대학교육의 인재상이 엔지니어라 면 공학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을 의미한다.

따라서 삼성, 현대, LG 등 채용 공 고가 나는 곳마다 지원서를 내는 것 이 아니라 설계분야 모집이 있는 곳 에 지원서를 접수해 취업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진로교육일 것이다. 산 업계가 요구하는 유용성과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인재 상과 학습성과를 명확히 하는 것 밖

에 없다.

지금의 창조경제처럼 지식기반사회 를 슬로건으로 하는 정부시절에 사회 패러다임이 바뀌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싶어 2002년 국제특허법무연수 원에서 지식재산관련교육을 받은 적 이 있다. 그것이 인연이 돼 2004년부터 ‘특허와 지식재산’ 과목을 10년 넘 게 강의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특허청이 주관하는 ‘특허전략유니버 시아드’ 대회에서 매년 수상자를 내 고 있다.

특허와 지식재산권,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매주 책 한권 을 읽는 독서포럼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소개서에 이 두 가지를 주 로 쓴다고 한다. 그러면 특허 임원 면 접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로 대개 면접이 끝나고, 원하는 기업의 합격증을 받는다고 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가? 처음엔 학생들이 잘하니까 붙였을 것이 라 생각했으나, 공통적으로 취업이 잘 되어 면접내용을 물었더니 학생들 은 “내가 직접 한 것은 무엇이나,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어 려운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했

느냐?” 등을 물어봤다고 답했다.

결국 전자에서 논의한 문제해결능 력이 있느냐를 인터뷰한 것이다. 또 독서포럼에 대해서도 “어떤 책을 읽 었느냐? 책은 누가 선정하느냐? 기억 나는 문장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질 문을 받았다고 했다. 즉, 자신을 관리 하고, 관심있는 분야나 업무에 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대비하는 자세 를 갖겠느냐를 살펴본 것이다.

문제해결역량은 기업이 요구하는 필요조건이고 지속가능성은 갖추야 할 충분조건이자 기본자세다.

수상자들은 기술이 흘러가는 것이 보인다고 말했다. 관심 있는 전공분야 의 기술이 흘러가는 게 보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수준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질적 수준이 이정도가 아닌가 하는 예측을 해 본다. 그러가 하면 기술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4학년인데도 취 업지원서를 낼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 는 학생도 상당수 있다.

이들 모두에게 특허와 지식재산권 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지식이고, 전공지식의 심화의 필요성 과 활용의 중요성 측면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크게 작용한다. 이에 점차 확 대해 아이디어에서 창업에 이르는 교 육과정을 ‘지식창업교육과정’이라는 명칭으로 2016년부터 국제캠퍼스에 개설하고, 서울캠퍼스에도 확대 운영 할 계획이다.

참여마당

박진영
경영학과 2014



해외여행, 당신은 안전한가

언제부터였을까, 사람들이 각종 SNS에 올리는 사진들이 외국 여행지를 배경으로 두는 경우가 잦아졌다. 고대와 현대를 넘나 드는 유럽의 건축물, 남미의 숲과 포근한 거리풍경, 중국의 유적 지 등 각양각색이다. 그럼에도, 해외여행이 빈번해진 풍조와는 달리 이에 응당 필요한 지식은 갖추지 못한 채 여행의 즐거움과 환상만을 가지고 밖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아직은 대부분인 듯 하다.

필자는 해외여행에서의 대표적인 위험 상황과 대처 방법 두 가 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여권분실의 위험이다.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대 부분의 여행자들은 흔히 ‘공항’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이런 통념과는 다르게 여권을 잃어버린 직후에는 가까운 현지 경찰 서를 찾아가 여권분실증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또 한국대사관 이나 총영사관(통칭 재외공관)에 재외공관에 분실 증명서, 사진 2장(여권용 컬러사진), 여권번호, 여권발행일 등을 기재한 서류 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급히 귀국해야 하는 경우라면 재외공관 을 방문해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여행 중 교통사고 등과 같이 법리적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다. 이 경우에는 먼저 재외공관에서 사건을 관할 하는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는다.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재외공관에서 통역 선 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여권분실의 경우와는 달리 이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보다는 재외공관에 먼저 연락하는 것 이 중요하다. 재외공관에서 자신이 궁금한 부분을 하나하나 물 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외의 긴급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와 마찬가지로 현 재 재외공관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각자가 여행지의 상황에 대해 미리 알아두어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겠다. 따라서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 할 안전정보를 제공해 주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방문을 추천한다. 어플리케이 션을 통해서도 현지 경찰서 번호 안내 및 사건장소 촬영, 녹취기 능을 비롯한 대한민국 외교부의 서비스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사 용 가능하다. 또한 국내에서는 02-3210-0404를, 해외에서는 현 지국제전화코드를 누른 후 822-3210-0404를 누르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 한 방법을 통해 여행할 국가의 안전 상태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험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습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가 필자가 우리 학교의 예비 해외여행자들에게 소개 해주고 싶었던 내용의 전부다. 요즘 ‘해외여행’이라는 주제에 매달려 자주 고민하다 보니 여행과 관련한 명문들을 여쭙잖게 접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이 괴테가 한 말이다. “사람이 여행을 하는 것은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 하기 위해서이다.” 그가 한 말처럼 여행은 이제 현대인의 삶에 서 필수불가결한 여가활동이자 여행 자체로 의미가 있는 활동 이 되었다. 빈번해진 여행만큼이나 안전한 여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인지하고 경각심을 갖춘 있는 예비 여행자가 되길 간절 히 바란다.

▶1면에서 이어짐

소크라테스를 포함한 7명 논자들의 에로스 예찬론으로 이루어진다. 파이드로스는 명예심과 용기의 덕을 고취하는 에로스를, 파우사니아스 는 혼의 덕을 함양하는 에로스를, 에 켓시마코스는 모든 존재자들의 형성 원리로서의 우주적 에로스를, 아리 스토파네스는 인간의 상실한 본성을 치유하는 에로스를, 아가톤은 인간 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의 원인으로서의 에로스를 찬양한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소크라 테스가 말하는 대목이다. 변증술가답 게 소크라테스는 아가톤과의 문답식 논의를 통해 에로스에 대해 논의하면 서, 에로스란 ‘그 스스로가 아름다움 이 부족하기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망’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만테이 아의 여인 디오티마에게 얻은 지혜를 전하는 방식으로 포로스와 페니아의 일화를 가져와 에로스 안에 충족과 결핍이 동시에 있다고 말한다. 에로스는 지혜로운 자와 무지한 자 사이에 존재하면서 좋은 것을 영구적으로 가



지려는 욕망이다. 또한 아름다운 것 에 대한 사랑이라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 욕망은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을 통해 충족되며 아름다움의 출산은 불사를 얻는 방식 이다. 불사를 얻는 보다 좋은 방법은 몸의 출산이 아닌 정신의 출산, 즉 고 귀한 정신적 유산을 많이 남기는 것 으로, 이를 통해 궁극적 아름다움에 도달하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에로스 안에는 풍요 로운 충족감과 더불어 궁핍한 결여

감이 언제나 공존한다. 결핍은 욕망 의 동인으로 에로스를 유발하며 이 런 에로스는 완성을 향해 움직이면 서 완전성의 영속화를 욕망한다. 결 국 항상 완성을 향해 전진하는 이 에 로스는 완성자가 아니라 미완성 상 태의 중간자일 수밖에 없고, 가멸 과 불멸 사이의 정령이자 다이몬 (daimon)이다. 그러나 에로스는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움직인다. 무지 에서 지혜로, 추함에서 아름다움으 로, 악에서 선으로, 불완전함에서 완

전함으로, 가멸성에서 불멸성으로, 인간에서 신을 향해 상승 작용을 한 다. 에로스는 미와 지와 완전을 향한 창조와 상승의 운동이라서 공동선의 이상사회를 이룩할 기반이 된다. 그 것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 텔레스에 이르는 진선미 일체론이다. 욕망은 완전성을 영속화하려는 운동 이지만 결핍이 없다면 그런 욕망도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욕망 의 패러독스이고, 에로스의 이중적 패러소나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1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광고기획 및 제작 카탈로그 포스터 부동산전단
신문제작 대학학보 구성소식지 사보출판 간행물 제작 · B

☎ 751-5939

문화

거지같은 청춘, 하지만 위로받지 않을 권리

최상진 교수, 청춘위한 책 출간

방누리 기자 nurib423@khu.ac.kr

#. “우리학교에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 늙은이.” 하얗게 머리가 세고 내후년에 정년퇴임을 바라보는 나이이지만 그의 웃음은 여전히 청춘처럼 맑다. 그는 바로 국문과의 영원한 ‘오빠’이자 ‘형’ 최상진 교수(국어국문학다. 최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근 3년간 ‘이런 거지같은 청춘’이란 제목으로 우리학교 신문방송국 웹페이지 ‘미디어센터’에 칼럼을 연재해왔다. 그리고 올해 11월, 그의 이야기들이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나왔다. 청춘의 바로 옆에서 부대끼며 고민하는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 교수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은 걸핏하면 휴교령이 내리고 수시로 군 병력이 주둔하던, 독재 치하의 70년대였다. ‘청춘은 있었지만 청춘은 없었다’던 빼어난 그의 청년시절은 늘 그에게 가슴 아프게 남았다. 그의 칼럼 제목인 ‘이런 거지같은 청춘’은 그가 지낸 시절의 거지같았던 청춘을 나타낸다. 그는 “학생들에게 시대적인 아픔을 물려줄 순 없다”며 “그래서 학생들과 좀 더 가깝게 지내며 잘해주려고, ‘청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의 노력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 제자들의 연애사와 집안 사정까지 두루 꿰고 있을 정도로 제자들과의 관계가 깊으며 2012년 말에는 학생들의 강의평가를 통해 주어지는 ‘베스트 티처’ 상을 받기도 했다. 그에게 비결을 묻자 “호주머니가 열려있는 것이 소통하는 것이다. 허허허”라며 친진하게 답했다.

“내 64년 인생 중 30년은 청춘으로서 배워왔고 나머지 30년은 청춘을 가르치며 살아왔어요. 청춘을 덕분에 먹고 살았으니 청춘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지. 그래서 내 호주머니는 항상 청춘들에게 열려있어 학생들과 술도 마시고 밥도 잘 사주는 것이죠. ‘먼저 다가가는 것’, 이게 비결이랄까.”

그래서 그는 상담할 때도 7-8명씩 묶어 먼저 술을 마시러 간다고 한다. 서먹서먹한 감정을 없애버린 뒤에, 교감을 나눠 서로의 마음을 연 뒤에 시작하는 상담이 진정한 상담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과거에 학생지원처장을 맡은 것 또한 학생들과 많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한다.

그렇게 그는 청춘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소통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왔다. 누구보다도 청춘을 먼저 생각해 오던 그도 중단된 연재를 다시 시작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정색을 한다. 2014년 4월 16일, 수백 명의 새싹 청춘이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그는 연재를 중단했다고 한다. “내가 명색이 교육잔대 어린 아이들을 바다에 넣고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더 쓰고 싶었지만 도저히 글이 안 나오더라”고 연신 할 말이 없었다고 되뇌었다. 참으로 먹먹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청춘들이 저 세상으로 내몰리는 우리 사회를 향해 소리친다. “뻔뻔하고 허접한 엘리트 비청춘들이 사회 조직을 이끌고 있는 이상, 청춘 레퀴엠은 계속 들릴 수밖에 없다. 청춘이 없는 미래는 죽은 미래다. 청춘들이여, 비청춘이 설게해 놓은 미래에 우롱당하지 말거라”

‘청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려고 노력

최 교수의 칼럼은 항상 긍정적인 댓글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칼럼인 ‘5포 청춘’(책에 실린 제목은 ‘다 포기하지마’)은 예외였다. 이 칼럼은 연애, 결혼, 출산, 주택 그리고 인간관계를 포기한 청춘을 일컫는 5포 청춘이라는 신조어를 씬쓸하게 바라보며 청춘들에게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이를 보고 어떤 이들은 ‘말이 참 쉽다’, ‘기성세대가 득권을 위해 만들어 놓은 사회에서 청춘과 비기득권보고 행복하라고 말하는 것이 모순이다’, ‘이 시대의 청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패배주의에 젖어 있지는 않다’, ‘잘못된 사회구조를 고칠 생각은 안하고 여전히 젊은이의 태도 문제로 몰아가는 어른신의 말씀이 참 불편하다’ 등 댓글들이 비판의 차원을 넘어 비난으로 보일 정도로 보일 만큼 격하게 치달았다.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읽고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겠지만 낯선 댓글에 적잖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법도 한 일이었다. 당시 상처받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원래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법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며 “해당 칼럼을 삭제하지 말고 모든 걸 그대로 두라고 운영자 측에 전했다”고 당부를 회상했다. 그는 아마 앞의 글을 다 읽지 않아 오해가 생겼던 것 같이라며 “본질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칼럼과는 달리, 이번에 출간한 책은 그동안 연재해 온 칼럼을 조각조각이 아닌



프리미엄 칼럼

5포 청춘

[연애를 포기한 연포, 결혼을 포기한 결포, 출산을 포기한 출포, 주택을 포기한 주포, 인간관계를 포기한 인포 등을 포기한 청춘을 일컫는 말이다.]

by 최상진 기자 (sjch@khu.ac.kr) | date 2014.9.25 9:57 | hit 4464

최상진 칼럼 '이런 거지같은 청춘'

<55> 5포 청춘

"이런 거지같은"이라는 말을 혼자 평두시처럼 알고 사는, 그래서 듣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혹시 나도 거지같은가"이라는 무언의 불안을 동지여 잊보게 하는 최상진 교수는 국문과의 영원한 '오빠'이자 제자들의 연애를 도우며 되고 있는가 하면 벼룩집 '책우정' 팀 쿼터마스터는 여담으로 "이런 거지같은"을 외치며 청춘의 아픔을 달래고 있는 그를 만날 수 있다.

최근 5포 청춘이라는 신조어가 청춘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다. 연애를 포기한 연포, 결혼을 포기한 결포, 출산을 포기한 출포, 주택을 포기한 주포, 인간관계를 포기한 인포 등을 포기한 청춘을 일컫는 말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청춘들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지표들이 미란 현상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고 슬프다. 도대체 포기할 줄 포기해야지 이런 걸 다 포기한다는 말인가. 정말 할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THEME

주제별 연재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은아의 '강의 일기'
- 한동희의 Rock&Roll
- 안병철의 꽃 이야기
- 고전의 사계
- 김미스에 새겨진 경희 정신
- 최상진의 '이런 거지같은 청춘'
- 안승범의 '작은영화로 본 큰 세상'
- 남기환의 '술은 역사를 찾아서'
- 김용은의 '청춘물결만 유물 선택'
- 해정박의 '고지도 이야기'
- 소통하는 인간 '호모커뮤니쿠스'를 꿈꾸다

이제기에 다시보는 청춘호

“

항상 청춘들이 개혁과 혁명의 중심에 있어왔고, 지금의 청춘들도 그래야 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

통합된 흐름 속에서 전체적인 의도를 감안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춘을 위한 책이 다양한 요즘 『청춘, 위로받지 않을 권리』에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자아가 일화 중심”이라고 말했다. 그의 책은 일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인 비판이라든가 자기반성을 담고 있어 추상적이지 않고 직설적이면서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책을 읽다 보면 다양한 일화 속 각양각색의 청춘들을 만날 수 있다.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청춘, 슬픈 사연을 지닌 청

춘, 조로 청춘 등등... 그리고 그 청춘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고 깨닫게 된다.

최 교수는 이 책을 모두에게 권하지만 특히 새로 들어오는 새내기 학생들과 지쳐가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 그리고 수험생을 둔 젊은 엄마, 아빠들이 이 책을 봤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 학생들은 용기를, 부모들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젊은 청춘들이 패배주의에 익숙해지지 말기를

그에게 이 책을 읽을 청춘들에게 바라는 점을 물었다.

“패배적인 청춘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익숙해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젊고 얼마나 좋아. 또 노인들, 젊은 엄마아빠들은 자신의 청춘시절을 떠올리며 청춘들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춘들이 자기 말고 깨어 있길 바랍니다.”

인터뷰 당일 오전 최 교수는 분당의 한 고등학교에서 인문학 강연을 하고 왔다고 한다. 그런데 커다란 시청각교육실에 모인 120명의 학생 중 20명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자더란다. 원해서 자신을 불렀을 텐데 뭐하자는 건가 싶었다며 그는 씩 웃었다. 그는 이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대학생 청춘들에게도 고한다. “자기 말고 깨어있자! 어린 캣거루처럼 부모의 품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쬐며 꾸벅꾸벅 졸고 있는 년 정말 거지같은 청춘이다. 언제까지 졸고 있을 거냐?”

마지막으로 그는 이 시대를 책임질 우리의 젊은 청춘들이 한 가지 더 포기한 게 있다며 “시대정신을 잃어버리고 힘든 취업에 매달려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말했다. “항상 청춘들이 개혁과 혁명의 중심에 있어왔고, 지금의 청춘들도 그래야 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청춘이라는, ‘교수님’보다 ‘선생님’이 좋다는 최 교수는 힘을 때 묵묵히 내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함께 하는 마음을 전한다. 때로는 청춘을 위로하며 때로는 비청춘을 같이 욕해주며 때로는 잘못된 점은 꾸짖기도 하며 말이다. “같이 소주 한 잔 하자구~” 청춘들에게 웃으며 먼저 손 내미는 그는 앞으로 이 책을 읽을 수많은 청춘에게 영원한 형이자 오빠가 되어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남녀 공감 심통 → 젠더역량강화 워크숍

학생지원처 여학생과에서는 '2015 고교교육정상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학교생활 적응력과 리더십을 향상하도록 돕고자 워크숍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 |
|----------------------------------|-----------------------|
| 주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리더십 향상 | 내용 |
| 일시: 2015.12.22.(화) 13시~18시(석식포함) | - 자기개념의 형성 과정 |
| 장소: 학생회관 1층 학생지원처 중세미나실 | - 섹스 vs 젠더 |
| 대상: 남·녀 학부 재학생 15명 내외 | - 성인지 리더십이란? |
| [참가자의 50%이상은 신입생(1학년)] | - 여성 및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
| 강사: 유정은 [젠더심향상교육원 원장] | - 여성에 대한 편견 |
| | - 성인지 리더십 향상을 위한 실천방안 |
| | - 인식의 완성 깨기 |
| | - 공감능력 향상시키기 |
| | - 성평등 실천방안 공유하기 |

접수기간: 2015.11.09.(월) ~ 12.18.(금)

신청방법: 여학생과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

여학생과 홈페이지: <http://web.khu.ac.kr/~wss0208/>

문의: Tel, 02-961-0208 e-mail- khsa0043@khu.ac.kr

빛나는 그대여, 경희의 얼굴이 되어라!

경희대학교 홍보대사

희망-국제캠퍼스

5기 모집

모집인원: 50명

지원자격: 공대 2인당 1명, 1, 2학년 재학생 (단, 휴학생 포함 1인 1표를 보정할 수 있는 자)

모집기간: 11월 1일 ~ 11월 31일 (수요일) 12월 1일 ~ 12월 15일 (목요일)

합격자 발표: 12월 15일 (목요일) 12월 16일 (금요일)

활동내용: 캠퍼스 내외에서 캠퍼스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 (예: 캠퍼스 홍보대사, 캠퍼스 홍보대사, 캠퍼스 홍보대사 등)

활동장소: 캠퍼스 내외 (예: 캠퍼스 내외, 캠퍼스 내외 등)

활동기간: 12월 1일 ~ 12월 15일 (목요일)

활동비용: 12월 15일 (목요일) 12월 16일 (금요일)

문의: 02-961-0208

중앙도서관 12월 문화프로그램 안내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는 12월 겨울을 맞아 다음과 같은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경희역사특별전 "Story, 경희의 역사가 되다"

1. 일시: 2015. 12. 8(화) ~ 12. 11(금)
2. 장소: 중앙도서관 1층 로비
3. 전시 내용: 7개의 색으로 구성된 경희의 역사 발자취

- 제 4회 세계영화제: 일본편

| 영화명 | 일시 | 해설 | 장소 |
|---|---------------------------------|----------------|---------------------|
| 誰も知らない (아무도 모른다) 감독: 是枝裕和 - 주연: 柳楽優弥, 北浦愛, 木村飛影 | 2015. 12. 7(월) 15:00 ~ 17:40 | 이지연 교수 (일본어학과) | 중앙도서관 AV실 영상세미나실 |
| 告白 (고백) - 감독: 中島哲也 - 주연: 松たか子, 岡田将生, 木村佳乃 | 2015. 12. 9(수) 15:00 ~ 17:10 | | |

※ 행사장 수용인원 관계로 참여자는 선착순 40명에 한함.

도서관 재능기부 문화프로그램, 당신의 재능을 보여주세요!

도서관은 복합문화공간 창출을 위한 장기계획으로 상설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 비롯하여 학생 개인이나 집단은 공연음악, 연극 등, 전시회(그림, 사진, 도예 등) 등을 통해 재능을 자유로이 펼쳐 보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본문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신청 방법: 이선우(☎: 031-201-3221, E-mail: asqa@khu.ac.kr)
2. 날짜: 신청 접수 후 기존 행사 날짜와 조정
3. 행사 내용: 자유 형식으로 하되 타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 범위 (예: 연주, 전시)
4. 행사 위치: 도서관 1층 로비
5. 공연 시간: 12시 ~ 13시 사이에서 조정

※ 전시회의 경우 상의 후 일정 조정 가능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